# 洋賢一年

스무 해의 시간, 스무 명의 시선

스무 해의 시간, 스무 명의 시선

# 洋賢十年

재단법인 양현 2006~2026



##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 이웃과 더불어 산다

**故 양현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철학**

故 양현(洋賢)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환원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 뜻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확산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2006년, 그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양현재단은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뿌리 삼아
해운물류 관련 학술·연구 활동 지원과
해운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물론,
소아암 등 난치병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 등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사업들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양현(洋賢)이 추구해온 삶의 철학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갈 가치입니다.

故 양현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주요 약력

**1954~1974**

1954. 6. 21. 인천 해안동에서 부친 조중훈 회장과 모친 김정일 여사의 4남 1녀 가운데 3남으로 출생(호적 1954.5.30.)
1967. 경복초등학교 졸업
1968. 경복중학교 2학년 재학 중 도미(渡美)
1970. The Rectory School 졸업
1974. Pomfret School 졸업

**1979~1985**

1979.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경영학 졸업
7. ㈜대한한공 입사(미국LA)
1984. 2. ㈜대한항공 미주지역 부본부장
1985. 10. ㈜한진해운(HJCL) 미주지역 본부장, 상무이사 (이하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겸직)
최은영 여사와 혼인(현 유수홀딩스 회장)

**1986~1990**

1986. 2. ㈜대한한공 미주지역 본부장
7. 장녀 유경 출생
1988. 6. 차녀 유홍 출생
11. ㈜한진해운 대표이사 총괄 수석전무
12. ㈜대한항공 영업본부 부본부장, 상무이사
1990. 2. ㈜대한항공 영업본부장, 전무이사

**1991~1995**

1991. 2. ㈜한진해운 대표이사 부사장
몰타공화국(MALTA) 명예 총영사
1992. 2. ㈜대한항공 영업총본부장, 부사장
1993. 3. International Council of Containership Operators(BOX Club) 멤버
6.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이사
1994. 2.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 취임
3. 한국해양소년단 제9대 총재(10대 총재 연임)
5.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에서 '교역안정화' 의제에 관한 주제 발표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및 초대 홍보위원장
1995. 4. 아시아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이사
6.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집행위원
7. 태평양항로안정화협의회(TSA) 제4대 의장 선임

**2002~2006**

2002. 11. 부친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별세
2003. 2.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BPW Korea) 'Gold Award' 수상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7.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취임
8.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 기회' 세미나 의장으로서 축사
2004. 6. 독일 함부르크 주정부 최고공로훈장 'The Honorary Medal of Gold' 수훈
7. 해군사관학교 훈련용 요트 '네이비 한진(Navy Hanjin) 호' 기증식 참석
2005. 4.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이사회 참석
5.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CKYH 얼라이언스 미팅 참석
2006. 11. 24. 재단법인 양현 설립을 위한 사재 출연 결정
26. 별세
12. 재단법인 양현 출범

재단법인 양현 주요 연혁

**2006~2010**

2006. 12. 06. 창립 총회 및 임원 선출
18. 재단법인 양현 설립 해양수산부 허가
20. 재단법인 양현 법인 인가
2007. 03. 27. 양현재단 후원회 결성
07. 13.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08. 01. 서울아산병원 '암 전문 인재육성 프로그램' 후원금 전달
10. 12. 부산대학교 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원 설립 지원금 전달
2008. 03. 28. 선박금융 'Sustainable Growth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체결
05. 20.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금 후원
07. 21. STC-K(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금 전달
10. 10. 제1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개최
2009. 01. 2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업 추진 기금 후원
07. 16. 기능성 게임 개발 MOU 체결(서울아산병원, 엔씨소프트)
21. 한국해양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09. 05. 서울아산병원 '양현 미술치료 교실' 후원
12. 22. 목포해양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2010. 02. 26. 충남대병원 '희망의 벽' 후원 및 제막식 실시
11. 15. 인하대병원 '양현미술치료교실' 후원
24. 사단법인 연우 '이동한방진료버스' 기증식
12. 01.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
07. 부산지역 아동보육시설 '은혜의 집' 도서관 건립 후원
15. 명지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 및 제막식 실시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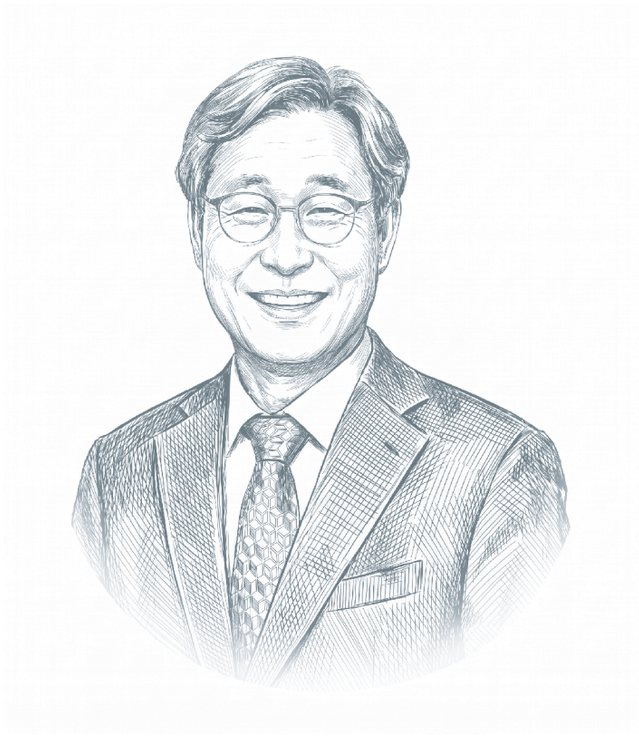
2011. 08. 31. 국제백신연구소(IVI) '인플루엔자 통합 상황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
11. 04. 제주한라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 및 제막식 실시
2012. 06. 05. 소아암 환아를 위한 무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보고회(서울 아산병원)
2013. 01. 22.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2014. 08. 30.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09. 03. 국제백신연구소(IVI) 어린이 대상 공중보건 및 나눔교육 '키키(KiKi) 프로그램' 후원
2015. 08. 04. 국제백신연구소 네팔 지역 콜레라 백신 접종 후원

**2016~2026**

2016. 11. 25.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
2017. 05. 29.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놀이치료 후원
2018. 08. 24. 국제백신연구소 마다가스카르 지역 주혈흡충증 치료 사업 후원
2019. 12. 16.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아동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후원
2021. 07. 21. 서울아산병원 VR 교육 프로그램(출혈 응급상황) 개발 후원
12. 16. 서울아산병원 VR 교육 프로그램(간호사정) 개발 후원
2022. 05. 25. 서울아산병원 의료인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후원
12. 23.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 제작 후원
2023. 03. 09. 의료취약지역 의료인 비대면 교육장비(VR, 메타버스) 후원
05. 23. 의료취약지역 환자 가정간호사업 차량 지원
2024. 06. 05. 뉴욕한국문화원 설치 강익중 작가 '한글벽' 작품 제작 후원
10. 17. 설립 18주년 기념 '야마구치 슈' 공개강연 개최
12. 07. 해운물류연구 우수논문 선정 '양현상' 시상 후원
2025. 04. 04. 경남지역 산불피해복구 후원(대한적십자사)
10. 21. 설립 19주년 기념 '송길영' 작가 공개강연 개최
12. 16. 서울아산병원 VR 교육(ECMO) 프로그램 개발 후원
2026. 03. 10. 푸르메재단 푸르메스페이스 조성 후원
10. 승가원행복마을 발달장애아동 이동차량 구입 후원

## 양현재단 20년의 여정,
## 함께 동행한 분들의 이야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한일 양현재단 이사장



*——— 양현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여정을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지켜온 가치, 실천의 순간들을 담은 『스무 해의 시간, 스무 명의 시선』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2006년, 우리 재단은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바다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철학을 실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해운물류 분야의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장학·의료·문화예술 지원 등 폭넓은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응원해 왔습니다.

*——— 이처럼 양현재단이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해주시고, 그 여정에 기꺼이 동행해주신 많은 분들의 신뢰와 참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념집에는 그동안 재단과 인연을 맺은 분들 가운데 스무 분을 선정하여, 그분들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재단이 걸어온 여정과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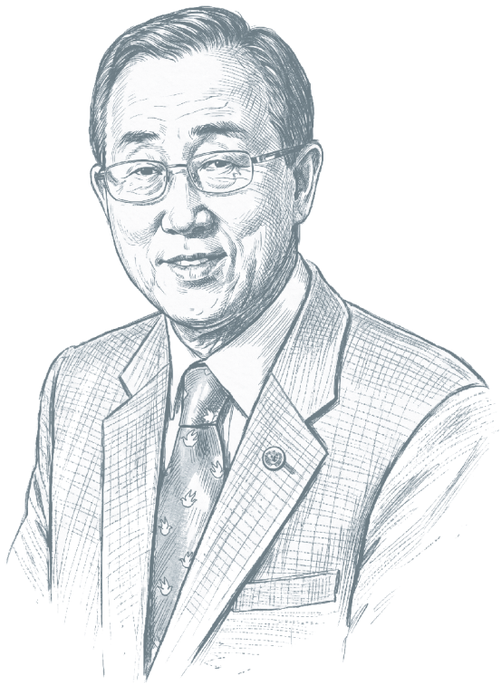
*——— 스무 분의 이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재단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신 소중한 기록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경험은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그려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록을 통해 '양현다움'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바쁜 일정 중에도 기꺼이 귀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신 스무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재단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향후 20년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념집 발간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현재단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현재단 설립 20주년
## 기념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반 기 문



*——— 양현재단은 20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님의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두운 곳에 사랑과 나눔의 빛을 비추며 한 개인의 철학이 어떻게 공동체의 자산으로 승화되고 지속가능한 가치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 저는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 당시 외교부 미주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지원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현금과 현물 총 5억 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제는 현물 지원을 위한 물자의 수송이었습니다. 이때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한진그룹이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이 조수호 회장님과 저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전쟁 지역으로의 물자 수송 임무를 주저했던 것과 달리 한진해운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미 동맹 정신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한국의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그 이후 저는 해외 근무로 서울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마다 조수호 회장님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회장님의 원대한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느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오늘날, 회장님의 선구적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저 역시 유엔 사무총장 1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권 증진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2018년 비엔나를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2024년에는 서울, 뉴욕, 베이징에 각각 ‘반기문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뜻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양현재단이 우리 사회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펼쳐 온 다양한 사회공헌 업적과 담대하고 포용적인 행보는 비견할 수 없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 다시 한번 양현재단 설립 20주년과 기념집의 발간을 축하하면서 조수호 회장님의 고귀한 뜻이 시대를 넘어 이어지고, 양현재단이 그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시민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CONTENTS

洋賢二十年 스무 해의 시간, 스무 명의 시선

재단법인 양현 yanghyun foundation

## PROLOGUE / 프롤로그


故 양현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철학 ..... 002
故 양현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주요 약력 ..... 004
재단법인 양현재단 주요 연혁 ..... 006
발간사 박한일 양현재단 이사장 ..... 008
축사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 010


## REMINISCENCE / 스무 명의 시선


Chapter 1 ——— 洋賢 양현

1 조건호 파인스트리트그룹 회장 ..... 016
2 류재혁 골디락스쉬핑 대표 ..... 022
3 이원우 독일 Eurogate 한국대표 ..... 028
4 박정원 前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 ..... 034

Chapter 2 ——— 同行 동행

5 김 면 양현재단 이사, 홍혜정 양현재단 후원회원 ..... 042
6 주장건 대양문화재단 이사장, 전혜옥 양현재단 후원회 초대회장 ..... 046
7 최은정 양현재단 후원회장 ..... 052

Chapter 3 ——— 實踐 실천

8 임경수 정읍 고부보건지소장 ..... 058
9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 064
10 김종우 LS일렉트릭 고문 ..... 070
11 김태완 前 양현재단 사무국장 ..... 074
12 이주헌 미술평론가 ..... 080
13 이숙경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 관장 ..... 086
14 김홍균 양현재단 이사 ..... 090
15 박형근 펀타스틱 씨어터 대표 ..... 096

Chapter 4 ——— 共感 공감

16 법진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 104
17 이영애 법무법인 산지 고문변호사 ..... 108
18 김영자 성심수녀회 수녀 ..... 112
19 정연두 미디어아티스트 ..... 118

Chapter 5 ——— 初心 초심

20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128


## EPILOGUE / 에필로그


화보 ..... 134
목적사업 현황 ..... 150
연혁 ..... 152
임원 현황 ..... 160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마음 .....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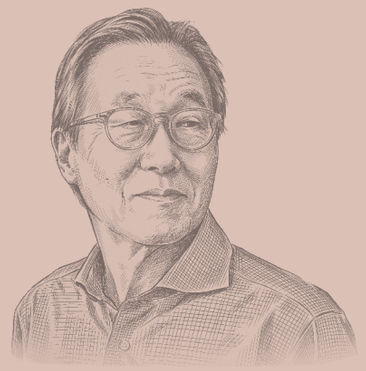
Chapter 1 **洋賢 양현**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세계 곳곳을 누비던 고된 삶 속에서도
늘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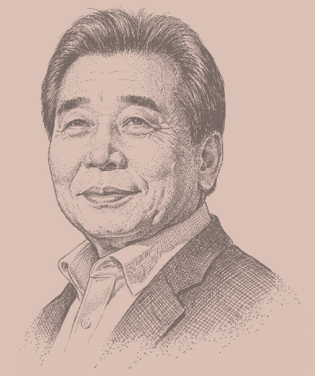
그와 함께했던 이들은 화려한 업적보다
따뜻한 배려와 진심을 먼저 떠올립니다.
평생의 벗으로, 존경하는 상사로,
때로는 삶의 방향을 일깨워준 인생의 길잡이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신념,
그것이 오늘의 양현재단을 있게 한 첫 마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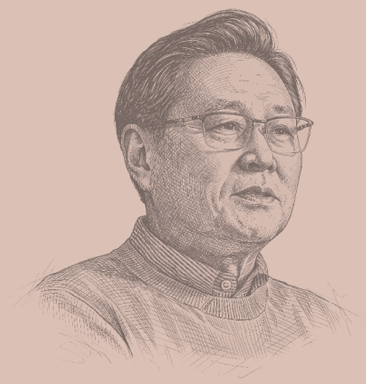
양현(洋賢)은 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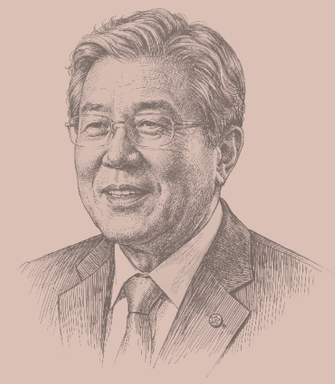
조건호 파인스트리트그룹 회장



류재혁 골디락스쉬핑 대표



이원우 독일 Eurogate 한국대표



박정원 前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




1

# 조건호

파인스트리트그룹 회장

前 밀레니엄파트너스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장
前 리먼브라더스 본사 부회장
前 리먼브라더스 아시아·태평양지역 CEO

2026년 2월 어느 아침, 조건호 파인스트리트그룹 회장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은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70대 중반에 접어든 자신과 달리, 그는 머리카락을 시원하게 빗어 넘긴 채 짙은 눈썹이 또렷한 50대 초반의 에너지 넘치는 얼굴 그대로다.

조건호 회장과 조수호 회장은 두 살 터울의 사촌 형제 사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사촌'이라는 수식어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다. 부모 곁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땅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버텨온 이들에게, 서로는 형제 그 이상의 동지이자 유일한 세계였다.

## 58년 전, 두 소년의 멀고도 긴 유학길

스무 해가 언제 이렇게 흘렀을까. 사진을 응시하던 조건호 회장의 기억은 썰물처럼 밀려가 58년 전, 두 사람의 운명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던 1968년 늦여름 날에 멈춰 섰다. 열일곱의 건호와 열다섯의 수호. 두 소년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한 뒤 시애틀을 거쳐 머나먼 뉴욕 땅에 닿았다. 다시 코네티컷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뉴욕의 어느 버스 터미널. 그곳은 어린 사촌 형제에게 녹록지 않은 세상이었다. 당시는 지금처럼 해외 유학이 흔한 시절이 아니었다. 더욱이 중·고등학생 또래의 어린 나이에, 그것도 부모 없이 둘이서 낯선 타국으로 향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움의 길이라기보다 가문과 국가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 낯선 세계로 나간 '어린 개척자'들의 외로운 사투에 가까웠다.

같은 뉴욕이라도 공항과 터미널의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다. 터미널 주변 동네는 어딘지

모르게 험악하고 위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낯설고 거친 억양,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외모에 소년들은 혹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했다. 그저 바닥을 지나가는 낯선 이들의 다리만 멍하니 쳐다보았고, 쉼 없이 들려오는 터미널 스피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 방송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허리가 유난히 길어 보이는 개가 그려진 고속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형 건호는 운전석의 기사에게 '코네티컷'을 몇 번이나 외치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행여 길을 잃어버릴까 손바닥에 땀이 밸 정도로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순간의 긴장감은 5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올라탄 버스의 차창 밖 풍경이 회색빛 도시를 벗어나 점차 푸른 숲으로 바뀌자 소년들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을 수 있었다.

그렇게 긴 여정 끝에 닿은 곳은 코네티컷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었다. 두 소년은 그곳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던 고모님 부부의 보살핌 아래 낯선 미국 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형 건호는 고등학교 과정인 폼프렛 스쿨(Pomfret School)에, 동생 수호는 인근의 중학교 과정인 렉토리 스쿨(The Rectory School)에 각각 입학했다. 그리고 2년 후 수호가 형이 다니던 폼프렛 스쿨로 진학하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같은 교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폼프렛 스쿨은 전인교육(全人教育)을 모토로 하는 명문 사립학교였다. 100년도 넘은 고색창연한 건물과 5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교정, 사계절 내내 우람한 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수호는 마치 원래 그곳에 있었던 존재처럼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크로스컨트리, 필드하키, 풋볼, 축구, 배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가 인기였다. 수호는 유독 레슬링에 마음을 쏟았다. 신체 조건은 서양 친구들에 비해 불리했지만, 기술과 체력을 부지런히 연마한다면 겨뤄볼 만하다는 판단이 섰던 모양이다. 수호는 매트 위에서 구르고 땀 흘리며 자신만의 승부 근성을 갈고닦았고, 결국 교내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이 값진 승리는 타국 생활을 스스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되었다.

졸업 무렵에는 당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광풍처럼 몰아치던 '히피 문화'에 빠져들기도 했다. 장발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물질문명을 비판하며 비틀즈의 음악에 열광하던 또래들처럼, 수호도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히피풍의 그림을 그렸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온몸으로 느끼며 호흡하던 그 시절, 수호의 영혼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젠틀맨'의 자양분을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다.

**자유롭고 순수한 영혼의 청년이, 해운산업을 이끄는 젠틀맨으로**

세월이 흘러 형 건호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뒤 1979년 씨티은행의 모회사인 씨티코프(Citi Corp.)에 입사해 금융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989년 리먼브라더스로 자리를 옮겼고, 2000년 리먼브라더스 아시아 CEO에 오른 뒤 2007년에는 글로벌 본사 부회장까지 역임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였다.

유학을 마친 동생 수호 역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1985년 한진해운 상무로 경영에 참여한 그는 1994년 대표이사 사장, 2003년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하며 한국 해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다. 세계 각국의 항만을 오가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도 한국 해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쉼 없이 현장을 누볐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에 몸담고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시대의 변화를 몸소 겪어낸 동반자이기도 했다.

1980~90년대 주로 세계 금융 시장을 무대로 활동한 조건호 회장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조수호 회장과 시간을 보내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때마다 형은 동생의 모습에 적잖이 놀라곤 했다. 학연과 지연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미국에서 마친 조수호 회장은 사실상 기댈 인맥이 없는 외톨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한국 비즈니스 사회의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조건호 회장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학 시절 레슬링을 통해 길러진 강인한 승부 근성, 자유로운 히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직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잊지 않는 겸손한 태도. 조수호 회장은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심을 앞세웠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다. 조건호 회장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해 온 동생에게 깊은 존경과 자부심을 느꼈다.

몇 해 전 어느 저녁이었다. 집 안을 정리하던 조건호 회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티셔츠 한 장을 발견했다. 강렬한 색감과 자유로운 붓 터치가 인상적인 그 옷은, 50여 년 전 히피 문화에 심취해 있던 대학생 수호가 직접 그림을 그려 형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낡은 천에는 청년 수호의 순수한 열정과 형을 향한 애정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그 티셔츠를 손에 쥔 순간, 조건호 회장의 기억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했던 유학 시절부터,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격려해 온 시간까지. 동생과 함께한 수많은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조건호 회장은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뒤로한 채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어떤 그리움은 세월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는 법이다. 뉴욕 버스 터미널에서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열다섯 살 소년이 금방이라도 "형님" 하고 정답게 부르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설 것만 같았다.

29층 창밖으로 아침 햇살을 머금은 한강의 푸른 물결이 여의도를 감싸 안으며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조건호 회장은 문득 생각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빛바랜 티셔츠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아야겠다고. 그 티셔츠 한 장에는 반세기에 걸친 형제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洋賢






2

# 류재혁

골디락스쉬핑 대표

前 한진에스엠 및 유수에스엠 대표이사
前 한진해운 미국 롱비치 지점장
前 한진해운 미국 시애틀 지점장
前 한진해운 본사 물류개발팀장/ 장비운영팀장/ 노무팀장
前 한진해운 구주지역본부(독일 함부르크) 물류팀장

1980년 2월, 나는 당시 국내 유일의 해기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던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 온 나라와 온 국민이 '잘살아 보자'며 새벽종을 울리던 1970년대 후반, 부산 앞바다 작은 섬에 세워진 대학 캠퍼스에서 나와 동기들은 매일 태평양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다. 해양입국의 주역으로서 모든 인생을 바다에 걸고, 마지막 순간에는 내 몸을 바다에 던진다는 신념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혔다. 졸업 후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운회사 대한해운공사의 적통을 이은 국내 대표 글로벌 해운회사 한진해운에 입사했다. 그리고 2016년 한진에스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30여 년 세월 동안, 한진해운의 자랑스러운 로고를 가슴에 달고 오대양을 누비며 청춘의 꿈을 마음껏 펼쳤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바다를 향한 꿈을 키우고, 우리나라 최고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에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운인으로서 자부심을 넘어 무한한 영광이자 축복이었다.

**한진 뉴욕호, 북미동안항로 개설로 대형선 시대의 닻을 올리다**

한진해운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가까워 온다. 후배들과 해운물류 회사를 운영하며 지내다 보니, 거친 파도를 헤치던 그 시절을 자주 돌아보고는 한다. 그 시절에 무엇보다 내게 강렬하게 각인된 장면은 1986년 한진 뉴욕호의 북미동안항로 개설이다. 내가 신참 딱지를 붙이고 승선 생활을 시작한 1980년 이후부터 세계 해운시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었다. 당시 한진해운은 1984년 7월 이후 국적선 공백 상태였던 북미동안항로의 개설을 결정했다. 북미동안항로를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700TEU급 대형 신조선 투입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최소 2~3년간의 적자를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중훈 한진해운 선대회장과 실무를 총괄하던 조수호 한진해운 미주지역 본부장이자 상무이사는 '세계적인 선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국가 주요 무역항로를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국가의 주요 무역항로를 국적선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명감이 과감한 취항을 결정하게 했다.

한진해운은 1986년 1월 30일 인수한 2,700TEU급 신형 경제선 '한진 뉴욕호'를 투입하여 그해 2월 9일 북미동안항로 개설의 역사적인 닻을 올렸다. 그 의미있는 현장에서 나는 일등항해사로서 한진 뉴욕호의 인수 요원으로 참여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그 순간은 내 생애 가장 뜨거운 기억이다. 한진해운의 발전사에 큰 획을 긋는 현장에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다는 벅찬 감동은 지금도 내 가슴속에 영원한 자부심으로 살아 있다. 이를 시작으로 한진해운은 1986년 한 해 동안 총 6척의 2,700TEU급 신형 경제선을 투입하며 본격적인 대형선 시대를 열어 항로를 성공적으로 개설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선사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류재혁 한진해운 미국 롱비치 지점장, 미국 롱비치항 시찰 및 협의(2007)

**월드 와이드 네트워크, 명실상부한 글로벌 캐리어로 우뚝 서다**

북미동안항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가던 1987년, 나는 배에서 내려와 한진해운 종합통제실에서 5년 동안 육상근무를 했다. 그리고 1992년 독일 함부르크의 구주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아 운항담당으로 물류팀장 직무를 수행했다.(1) 함부르크에서 근무한 지 3년 차에 접어들던 1994년 2월 당시 조수호 부사장이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85년 미주지역본부장을 거쳐 총괄수석전무로 취임한 1988년부터 이근수 사장을 보좌하면서 1991년 국적선사 최초 매출 1조 원 달성, 세계 컨테이너 선박량 9위 등 이미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한 리더였다. 또한 1993년 6월 2일 한국인 최초로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이사에 선임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운 전문인으로서 한국 해운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경영전략 추진을 위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1)——주재원 부임시 운항담당이었으며, 3년 후 물류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한진해운은 조중훈 회장, 이근수 부회장, 조수호 사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신구(新舊)의 조화를 이루며 과감한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에 나섰다. 탁월한 국제적 감각으로 이미 세계 해운업계에서 한국 해운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던 조수호 사장은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의 최고 적임자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그러한 회사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한진해운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업적을 이루어 냈으니, 그것은 바로 1997년 독일의 2대 선사인 DSR 세나토(Senator)를 인수한 사건이었다.

당시 DSR 세나토는 1996년 말 기준으로 장기 용선 55척(12만 6,038TEU)의 지배선대(支配船隊)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중 대선(貸船) 물량을 제외한 실제 운항 선박은 38척(9만 9,824TEU)에 달했으며, 주력 선대는 2,700~3,000TEU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일주 노선(RTW)과 아시아-지중해-북미 항로(AMA) 등 총 12개 항로를 운영 중이었는데, 특히 대서양과 지중해 항로에서 강세를 보여 캐나다-지중해 항로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30%에 육박했다.




류재혁 한진에스엠 및 유수에스엠 대표이사, 1만 TEU 컨테이너선 '한진코리아'호 명명식 참석(2010)

(2)——International Council of Containership Operators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해운업계의 불황은 DSR 세나토에게도 피할 수 없는 위기였다. 주력인 세계일주 노선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1996년 한 해에만 4,000만 마르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된 손실로 인해 긴급한 경영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조수호 사장이었다. 일명 '박스 클럽'(BOX Club)(2)의 멤버이자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이사로 활동하며 구축한 그의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 레이더에 DSR 세나토의 내부 사정이 포착된 것이다. 조수호 사장은 즉시 물밑 작업에 착수하여 한진해운의 자본 참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동시에 대규모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는 내부 경영진을 설득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한진그룹 각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모두 독일 함부르크로 초청해 인수의 당위성을 수차례 역설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성과를 제시하며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확신으로 바꿔놓은 끝에 마침내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었다.

당시 물류팀장을 맡고 있던 나는 구주지역본부의 여러 팀장 가운데 가장 막내뻘로, 함부르크를 방문한 계열사 경영진의 의전 실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조수호 사장이

DSR 세나토 인수를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의 땀과 노력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사활을 건 그의 신념과 열정은 1997년 2월 25일, 마침내 정식 인수 계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한진해운이 지분 80%를 취득하며 DSR 세나토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DSR 세나토 인수를 계기로 세계 5위권 초대형 선사로 급부상하며 대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6년 기준 양사의 수송 실적은 221만TEU, 매출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항로의 다변화였다. 기존의 강점이었던 북미·유럽항로를 넘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대서양, 지중해, 남북 항로의 서비스 경쟁력을 단숨에 강화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전 세계를 잇는 '월드 와이드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캐리어로서 세계 해운계를 선도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해양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희망이 되다**

조수호 사장은 외연 확장을 통해 한진해운을 '글로벌 캐리어'로 도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해상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기술의 전문화와 고급화를 꾀하며 내적 경쟁력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그 시작은 1992년 컨테이너선에 교육 설비를 갖춘 '교육선박(Training Ship)' 운영이었다. 1993년 1월 제1차 교육선 4,000TEU급 '한진 말타호'를 시작으로, 제2차 교육선으로 동형선 '한진 마르세이유호'를 차례로 인수하여 현장에 투입했다. 이곳에서 초임사관부터 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실무 교육이 이뤄졌으며, 1995년부터는 해상 경험이 전무한 육상 신입사원 전원에게도 승선 연수를 실시해 해운업의 핵심인 선박과 승무원의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게 했다.

나아가 교육선박을 활용한 '대학생 승선연수', '인턴 해기사', '해사고 출신 해기사 채용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완벽한 해기사를 양성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졸업생들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는 국내 해양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구적인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해양대학교 한진홀(Hall)

(3) 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Support

나의 모교인 한국해양대학교는 2025년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한진해운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 부서의 요직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을 만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사실 1980~90년대 해양대생들에게 '한진'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눈과 귀에 익은 무척이나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 친숙함 중심에는 캠퍼스에 자리한 '한진홀(Hall)'이 있었다. 1995년 모교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한진해운이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3억 원을 흔쾌히 내놓았고, 학교 측은 그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현재 산학연ETRS(3)센터가 들어선 50주년 기념관 대강당을 '한진홀(Hall)'이라 명명하고 그 공로를 영구히 기리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한국해양대학에 대한 지원은 조수호 회장이 타계한 후에도 최은영 회장을 통해 면면히 이어졌다. 내가 한진에스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에도 한진해운은 2억 원을 출연해 선박 적하 시뮬레이션 장비 도입과 노후화된 한진홀의 시설 개선을 도왔다. 그리고 2026년 현재까지도 해운산업의 진흥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유지는 양현재단을 통해 해운 연구지원과 장학사업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교 80주년을 맞은 모교를 방문했다가 캠퍼스에 조성된 '명예의 전당'을 찾았다. 그곳 기념벽 동판에 새겨진 한진해운의 로고를 마주한 순간,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지난 세월의 복잡한 감회가 밀려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마음을 추스르며 교정을 나서는 길, 나는 모교 후배들에게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았다.

"불굴의 의지로 오대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한국 해운의 기틀을 세운 선배들의 뜨거운 땀과 열정이 부디 그대들에게 온전히 가 닿기를. 그리하여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와 해양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닻이 바로 그대들의 손을 통해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기를." 洋普



花 樣 年 華

# 내 생의 화양연화로 남은 —— 한 사람

3

## 이원우

독일 Eurogate 한국대표

前 양현재단 감사(2015.07.01. ~ 2022.12.17.)
前 한진해운 부사장(컨테이너사업부문, 2009.01. ~ 2011.11.)
前 한진해운 전무(기획·관리부문, 2007.03. ~ 2008.12.)
前 한진해운 상무, 유럽본부장(독일 함부르크, 2003.01. ~ 2007.02.)
前 한진해운 상무(인사담당, 2001.02. ~ 2002.12.)
前 한진해운 프랑스지점장(노르망디, 1995.10. ~ 1999.10.)

2025년 가을의 어느 날, 양현재단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재단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강연회 초청장이었다. 나는 2011년 한진해운 컨테이너 사업부문 부사장을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2015년 당시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고마운 부름을 받아 양현재단의 감사로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재단과 함께한 7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큰 보람이자 더없는 영예였다.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며,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생전에 몸소 실천했던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다시금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오랜만에 날아온 재단의 소식은, 한진해운의 일원으로서 그 찬란했던 시절이 보내온 연서(戀書)처럼 느껴졌다. 조수호 회장이 하늘의 별이 된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고희조차 넘어선 내 생애 어느 가을날, 왜 이 메일 한 통이 이토록 가슴을 뛰게 했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한 그루 큰 나무로 우뚝 서 있는 조수호 회장과의 추억 몇 장면을 기억의 서랍 속에서 가만히 꺼내어 본다.

###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비즈니스다

2003년 1월, 나는 한진해운 유럽본부장으로 발령받아 독일 함부르크 유럽본부에 부임했다. 업무 파악으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던 부임 초기의 어느 날, 조수호 회장이 유럽본부를 방문했다. 그날 조수호 회장은 나를 운전석에 앉히고 본인은 조수석에 올라 함부르크 시내 곳곳을 안내했다. 함부르크의 주요

기관부터 식당과 명소까지, 현지 지리를 하나하나 자상하게 알려주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그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앵글로-저먼클럽(Anglo-German Club)이었다.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인 클럽 테라스에서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아우센알스터(Aussenalster) 호수를 바라보며, 조수호 회장은 앞으로 만나게 될 현지의 주요 고객과 파트너들의 면면을 세심하게 들려주었다. 앵글로-저먼클럽은 독일은 물론, 유럽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모임 장소로 가장 사랑받는 곳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곳은 내가 조수호 회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이기도 하다.

조수호 회장은 그 유서 깊고 품격 있는 공간에서 유럽의 선주를 비롯해 터미널 소유주, 은행 경영진 등 각계 인사들과 신뢰와 우정을 쌓아갔다. 흥미로운 점은 조수호 회장은 파트너들과 만날 때 가급적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대가 '사업 파트너'가 아닌 '친구'로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즈니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 그것은 그의 확고한 철학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는 일에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상대의 기호와 관심사를 살피는 것은 물론, 대화의 실마리가 될 주제들을 미리 익혀두곤 했다. 프리미어리그 소식부터 포뮬러원(F1), IT, 미술에 이르기까지, 어떤 화제 앞에서도 깊고 넓은 식견으로 대화를 주도했다. 조수호 회장을 만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은 그의 탁월한 국제 감각과 품위 있는 매너,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카리스마에 매료되곤 했다. 그 시절 세계 무대에서 조수호 회장은 곧 대한민국 해운의 자부심이자 위상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앵글로-저먼클럽
(Anglo-German Club) 전경
(출처: 앵글로-저먼클럽 공식홈페이지)

**세계가 공인한 대인(大人)의 품격**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조수호 회장은 1993년부터 세계 컨테이너선사 CEO 모임인 일명 '박스클럽(BOX Club)' 멤버로 활동했으며, 태평양노선안정화협의체(TSA) 의장과 세계선사협의회(WSC) 이사를 역임하며 국제 해운업계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한국 해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빈 그의 헌신은 국경을 넘어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오너러리 메달 오브 골드'(The Honorary Medal of Gold) 수상(2004)

그 결실로 2004년, 조수호 회장은 독일 함부르크 주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공로훈장인 '오너러리 메달 오브 골드'(The Honorary Medal of Gold)를 수상했다. 1853년 제정 이래 151년 역사 동안 단 35명에게만 허락된 이 권위 있는 훈장은 그의 경영 능력과 인품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평소 내게 "비즈니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촌스러워집니다."라며 웃으며 말씀하시던 분이었기에, 이 수상은 그가 지닌 대인(大人)으로서의 품격이 세계 무대에서 공인받은 순간으로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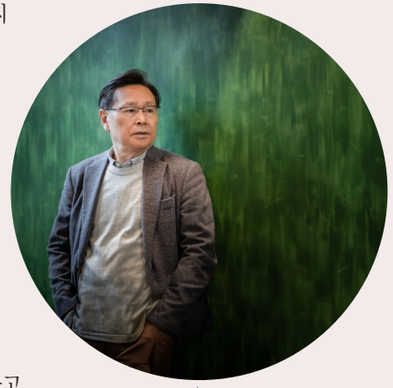
조수호 회장의 철학은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되었다. 한진해운은 2004년 영업이익 8,198억 원, 순이익 6,45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영업이익률 13.2%라는 경이로운 성과는 비즈니스에 앞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고자 했던 그의 경영 철학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진해운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한 진정한 동력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 세계를 누비며 글로벌 리더로 활약한 조수호 회장은 한진해운 직원들 또한 자신과 같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기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있다."라는 철학 아래, 그는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국제화 도전 과정', '지역 전문가 과정' 및 'GMTP 과정(Global Manager Training Progra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이 업무 부담 없이 해외 거점 지역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인재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던 그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직급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다가갔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낸 조직 문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윗사람으로서 말을 앞세우기보다,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몸소 실천했던 사람.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조수호 회장의 모습이다.

**내 마음속 한 그루 나무로 뿌리 내린 사람**

2006년 11월 26일, 파리의 늦은 밤이었다.
샤를드골 공항을 이륙해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쏟아지는 눈물과 비통함을 억누르며 창밖의 끝없는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과 사흘 전까지 업무 메일에 답신을 보내주었던 분이었다. 그해 5월만 해도 함부르크 앵글로-저먼클럽에서 한층 건강해진 모습으로 유럽의 오랜 파트너들을 초대해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식사 모임을 가졌던 그였기에, 이 갑작스러운 이별은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

꼭두새벽 함부르크 사택에서 잠을 깨우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울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부고 소식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말문이 막힌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날이 밝고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추슬러 현지 파트너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비보를 접한 토마스 에켈만(Eurogate CEO), 세실리아 에켈만(Contship Italia CEO), 니콜라스 슈에스(F.Laeisz CEO), 게르트 나우슈(CONTI Reederei CEO) 등 네 사람은 망설임 없이 서울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조수호 회장과 평소 스스럼없이 서로의 집을 오갈 만큼 친밀한 사이였지만, 유럽 해운업계의 거물들이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조문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조수호 회장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진정성이 국경과 비즈니스를 넘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북받치는 슬픔 속에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이원우 독일 Eurogate 한국대표

갑작스러운 여정 탓에 독일에서 우리 일행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직항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게르트 나우슈 사장은 다른 항공편으로 먼저 출발해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고, 남은 세 명의 일행과 나는 파리로 이동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유럽 대륙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문득 1990년대 중후반의 조수호 회장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내가 프랑스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는 파리 출장을 올 때마다 눈에 띄게 비쩍 마른 나를 보며 "노르망디 바람에 날아가겠다"고 농담 섞인 걱정을 했다. 식당에 가면 으레 자신의 디저트를 내 접시에 슬쩍 옮겨주었고, 살찌는 데 좋다며 찐 밤을 한가득 구해와 손에 쥐여주곤 했다.

그의 배려는 비단 내게만 머물지 않았다. 출장길에 동행하는 비서를 향한 마음 씀씀이 또한 각별했다. 일과를 마친 뒤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그는 언제나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을 명확히 일러주었다. 상사가 일정을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비서는 혹여 늦을까 노심초사하며 새벽부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비서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그만큼 더 활기차게 조수호 회장을 보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것이 고객이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혹은 부하 직원이든 구분 없었다. 누구에게나 편견과 차별 없이 다가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
조수호 회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그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다.
이른 새벽부터 유럽본부 사무실에 나가 유럽 각국의 산하 지점에 부고를 전하고 현지 빈소를 마련한 뒤 일행을 모셔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아득하기만 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마음은 칼로 베어낸 듯 서늘하고 시렸다.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자 캄캄한 망막 위로 조수호 회장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졌고,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눈을 떠보니 함께 비행기에 오른 일행이 통로에 둘러서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내 이름을 부르고는, 나를 가볍게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문득 조수호 회장의 다정한 온기가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들은 일등석을 마다하고, 비어 있던 내 옆자리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와 앉았다. 본인들만 넓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그저 곁에서 함께 가겠다는 듯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50대 중반의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을 훔치며, 파리에서 인천에 이르는 긴 비행 내내 이제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한 사람을 추억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삶의 궤적을 남겨준 사람, 참으로 닮고 싶었던 리더 조수호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이어졌다.

파리발 인천행 여객기는 시속 800km로 순항 중이었고, 9,000m 상공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사람이 한 그루 큰 나무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4

# 박정원

前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　　前 세계선사협의회(WSC) 이사

**바다에서 찾은 길, 해운보국(海運報國)이라는 사명**

박정원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은 대한민국 해운 역사의 산증인이자 평생을 바다의 최전선에서 호흡해 온 진정한 해운인이다. 1972년 한진해운의 전신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한 이래, 그는 롱비치와 뉴욕 등 글로벌 물류의 거점에서 지점장 등을 지내며 현장의 야성을 몸소 익혔다.

그가 흘린 땀방울은 한진해운이 세계 굴지의 선사로 도약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는 책상 위에서 숫자를 따지는 경영자이기보다 거친 파도와 직접 맞서며 길을 찾아낸 야전의 사령관에 가까웠다.

그는 평소 해운업을 단순히 화물을 나르는 비즈니스가 아닌, ‘국가 기간산업’이자 ‘안보의 보루’로 정의하며 남다른 애국심을 피력했다. 박정원 사장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확고한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한국 민족은 해양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각자무치(角者無齒)라는 말이 있습니다. 뿔 있는 짐승은 날카로운 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인데,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바다를 보듬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국방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해운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쟁 나면 한진해운 선박은 군함으로 개조되거나 군수 물자를 나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누가 뭐래도 애국자다’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볼 때도 해운업만 한 효자 산업은 드뭅니다. 해운업은 해운업 자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기간산업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건 해운업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조선·항만이 발달하니까 연관 산업인 기계와 전기산업도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해운업은 정말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는 해운업이 조선, 항만, 기계, 전기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여러 기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효자 산업'임을 역설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 된 배경에는 이를 든든하게 받쳐준 해운업이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2003년 7월 취임한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경영 비전과 궤를 같이했다.



박정원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 '국제 해양 명예의 전당' (International Maritime Hall of Fame Award) 수상(2007)

두 사람은 회장과 사장이라는 관계를 넘어, '해운보국'(海運報國)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2004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박정원 사장은 조수호 회장의 비전을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그는 취임 직후 조직 역량 극대화, 재무구조 개선, 불황기 대비 체제 재구축을 목표로 한진해운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2005년 2월 추진한 창사 이래 최대 경영혁신 '프로젝트 PI(Process Innovation)'는 박정원 사장의 뚝심이 빚어낸 결실이었다. 이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조직을 만들어 국가 경제의 혈맥을 지키겠다는 그의 책임감이 투영된 행보였다. 그는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윤리·준법 경영을 실천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다각화하는 등 한진해운의 내실을 단단하게 다져 나갔다.

박정원 한진해운 대표이사 사장,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영결식에서 조사 낭독(2006.11.)



**비통함을 사명감으로**

박정원 사장에게 조수호 회장은 단순한 상사 그 이상의 존재였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항로를 함께 개척하며 한국 해운의 자존심을 세웠던 가장 가까운 전우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병세가 호전되는 줄만 알았던 조수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는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2006년 11월 29일 거행된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세월의 무게와 동지를 먼저 보낸 비통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20년을 모신 분이니 추억이 많습니다. 같이 출장도 많이 다녔고요. 조수호 회장은 한진해운을 세계적인 해운회사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굉장했습니다. 세계 컨테이너 업계를 리드한 분이셨지요. 회장님은 세계적 선사 대표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도 재미있는 유머로 좌중의 분위기를 주도하곤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컨테이너 대형화를 외쳤으니 대단한 선견지명도 갖추셨습니다. 개인적으론 제가 영업본부장 할 때도 힘과 용기를 많이 실어 주셨습니다. 참 배운 게 많습니다."

박정원 사장은 조수호 회장이 보여준 대담한 선견지명과 자신에게 실어주었던 무한한 신뢰를 회상하며 슬픔을 억눌렀다. 그는 개인적인 상실감에 빠져 있기보다 조수호 회장이 못다 이룬 '초일류 종합물류기업'이라는 비전을 완성하는 것이 동지에 대한 가장 뜨거운 예우라고 믿었다. 그는 그렇게 비통함을 사명감으로 바꾸어 경영의 최전선을 지켰다.

**거친 풍랑에도 흔들림 없는 뚝심**

조수호 선장의 유고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한진해운이라는 거함이 중심을 잡고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원 사장이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경영 일선에 나선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보좌하며, 조수호 회장과 생전에 약속했던 '선단의 초대형화' 전략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




한진해운,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 '월드 클래스(World Class)' 기업 부문 2년 연속 선정(2006)

그 결실로 2006년 한진해운은 국적선사 최초로 1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며 세계 해운시장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3년까지 주력 선대를 모두 초대형화한다는 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각 항로의 특성에 맞는 적정 선박을 투입해 서비스 최적화를 실현했다. 이는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승부수였다.

박정원 사장의 시선은 바다 너머 항만과 물류 시스템 전반을 향해 있었다. 그는 글로벌 동맹사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운송 기간을 단축하고 정시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화주들의 신뢰를 한층 높였다. 동시에 남미, 지중해, 동유럽, 중동 등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나갔다.
특히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전용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확보했으며, 터미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진퍼시픽(HPC)을
설립하는 등 통합 운영의 독자적 기틀을 마련했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벌크 부문에서도
전략 화주를 중심으로 한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신형선을 발주함으로써, 한진해운의
성장 기반을 다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박정원 사장은 거친 풍랑 속에서 배의 수평을 유지하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칫 표류할 수 있었던 조직의 중심을 잡고 경영 안정화를 일궈냄으로써,
차기 경영진이 안착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준 뒤 방향키를 순조롭게 넘겨주었다.
이는 개인의 권력보다 조직의 영속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전문경영인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2008년 12월, 그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퇴임 후에도 한진해운의 맏형이자 고문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마지막까지 바다 곁을 지켰다.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한국 해운의 자부심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박정원 사장.
그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바다의 사나이'로 기억되는 이유다.

Chapter 2 **同行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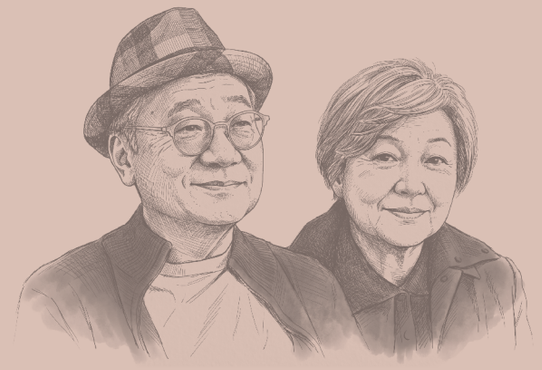
그가 떠난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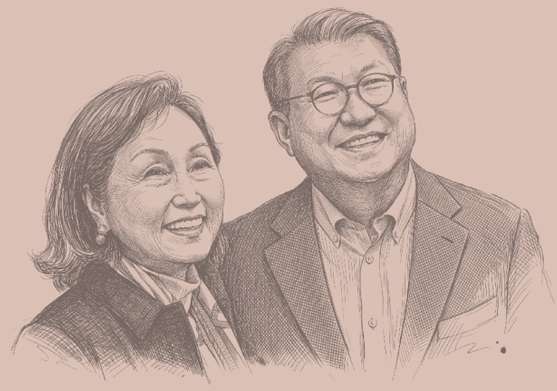
그저 그가 남긴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결심들이 하나둘 모여
양현재단 '후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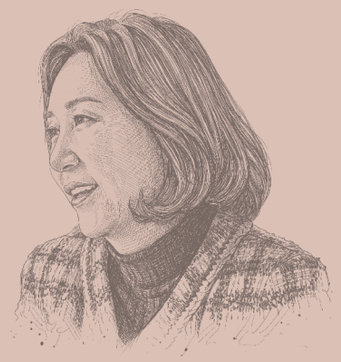
그리움은 나눔이 되었고, 애도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김 면 양현재단 이사, 홍혜정 양현재단 후원회원



전혜옥 양현재단 후원회 초대회장, 주장건 대양문화재단 이사장



최은정 양현재단 후원회장



당신이 남기신 숭고한 유지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5

# 김 면, 홍혜정

양현재단 이사　　양현재단 후원회원

(김 면 양현재단 이사)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명예교수
前 다빈치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단장(BK+21)
前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장/ 디자인대학원장
前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학장(president)
前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前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디자인과 교수

**아내를 두고 떠나는 한 사내의 애절한 마음**

2006년 11월 초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인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저를 찾는다며, 병원에 한번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를 병실로 부를 정도라면 병세가 많이 호전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앞섰습니다. 반갑고 기쁜 마음에 꽃다발을 들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다림질이라도 한 듯 깔끔한 환자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조수호 회장이 침상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모습에서 투병 중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단정한 품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야윈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유경이 아버지, 살 빼시니까 모델처럼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시답지 않은 농담에 그는 빙그레 웃으며 화답해 주었고, 제가 병실을 나설 때까지 여러 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불과 2주 후, 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리라고는. 부고를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 병실에서 마주했던 그의 눈빛과 미소가 지닌 의미를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힘겨운 몸 상태에서도 저를 병실로 부른 것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아내가, 오랜 친구와 잠시나마 웃고 이야기하며 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떠난 뒤 두 딸과 홀로 남겨질 아내를
잘 부탁한다는 무언의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곁에 있는 이들을 먼저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하는
한 사내의 가장 애절하고도 순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도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크나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남긴 채, 2006년 11월 조수호 회장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향한 희망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못다 한 '나눔'의 당부를 세상에 남기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해운산업을 이끌며 넓고 어진 바다처럼 살았던 그는, 척박한 현실에서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양현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최은영 회장을 응원하고자, 2007년 3월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지인 20여 명과 함께 자발적으로 양현재단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후원회는 재단이 펼쳐온 의료지원과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때로는 주부로서의 강점을 살려 가장 낮은 곳부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이 병동의 환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홍혜정 양현재단 후원회원,
보라매병원 환아 위문(2011)

남편 김 면 양현재단 이사는 생전에 조수호 회장을 직접 대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 조수호 회장의 따뜻한 성품과 투병 중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수없이 전해 들었습니다. 곁에서 재단의 진심 어린 행보를 지켜보며, 조수호 회장이 남긴 유지의 무게와 진정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어도 그분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는 충분히 알겠다"며 기쁜 마음으로 재단의 사업에 참여한 그는, 2020년부터 양현재단의 이사로서 활동하며 재단의 내실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 면 이사는 이사회 때마다 재단이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나눕니다. 특히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단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재단 사업의 홍보와 브랜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재단의 든든한 전략가이자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던 대외 봉사활동도 최근 들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후원회원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여린 몸으로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만나며 같이 울고 같이 웃었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와 독거노인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를 나누며, 불안정한 그들의 생활을 더 도울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수백 포기의 김장을 하면서는 며칠 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고단한 기억을 나누며 회원들 간의 우애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후원회원들의 나이도 어느덧 6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현재단 덕분에 정작 더 많은 위로와 보람을 얻은 것은 우리 자신이었다고.



김 면 양현재단 이사,
홍혜정 양현재단 후원회원

올해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부부와 후원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조수호 회장에게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경이 아버지, 당신이 남긴 숭고한 유지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곳에서 당신도 기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우리에게 심어준 선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소외된 곳을
먼저 살피고, 꽃이 되기보다는 흙 속에서 싹을 틔우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양현재단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유경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나의 친구여

6

# 주장건,
대양문화재단 이사장, 세종투자개발 회장

# 전혜옥
양현재단 후원회 초대회장

**속도보다 방향을, 조급함보다 꾸준함을**

나의 오랜 친구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은 평생을 해운업에 몸담은 기업인으로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이사장을 맡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꿈과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미래세대가 바다를 향한 원대한 희망과 책임감을 동시에 품을 수 있도록 앞장서 이끌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웃을 돌보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 후원과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의 삶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진정한 리더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투병이라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평소 사회에서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했던 깊은 뜻을 행동으로 옮겨, 자신이 누렸던 복을 사회에 되돌리고자 개인 재산을 아낌없이 출연하여 양현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던 그 숭고한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던 우리에게 잊지 못할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현재단 설립 당시, 저는 설립자의 깊은 신뢰 속에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자의 고귀한 뜻을 완벽히 받들기에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고, 더 훌륭한 분이 재단의 기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정중히 고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그의 뜻을 함께하는 훌륭한 분들이 주변에 많았고, 그분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단을 이끌어주어 오늘날 양현재단이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것을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현재단이 비록 작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맑고 고요하게 흐르는 옹달샘처럼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터로 남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친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물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가며 목마른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존재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황소처럼 느린
걸음일지라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은 결국 목적지에 닿는 법입니다.
지난 이십 년 동안 양현재단이 그래왔듯이 속도보다 방향을, 조급함보다 꾸준함을 선택하는
자세는 험난한 길조차 평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현재단이 보여준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은 그 자체로 귀한 자산이며, 앞으로도 재단이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울림을 만들어내듯, 양현재단
역시 세상에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가 남긴 나눔의 뜻을 실천하다**

조수호 회장이 떠난 이듬해인 2007년,
그의 나눔의 뜻을 보다 실천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양현재단 '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아내 전혜옥은 초대 후원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가 남긴 못다 한 사랑의 온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분주히 뛰었습니다. 단순히 기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원회원들은 나눔이 필요한 현장마다 직접 발걸음을 옮겨 온기를
보태고자 노력했습니다.
단 한 끼가 절실한 이웃을 위해 시작한 밥퍼 봉사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배웠고, 투병 생활에 지친 환아들에게
작은 위안을 전하고자 시작한 병원 위문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며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조수호 회장이 생전에 꿈꾸었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조금씩 빚어간다는 자부심에 마음만은 늘 훈훈했습니다.
후원회 활동을 통해 만난 수많은 인연과 그들의 밝은 미소는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또 다른 형태의 선물이었습니다.




전혜옥 양현재단 후원회 초대회장,
꿈사랑학교 (사)더불어하나회
후원금 전달식 참석(2007)

**함께라서 더욱 눈부셨던 그 시절**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을 나의 친구 조수호 회장이
지금도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민과 열정을 스스럼없이 나누었던
사이였기에 그 빈자리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동갑내기 절친으로서
인생의 가장 화창한 날과 폭풍우 몰아치는 날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특히 결혼 후 자녀를 낳고 두 집안이 마치 한 가족처럼 어울려 여행을
다니고 추억을 쌓았던 시간은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그의 집 뜰에 모여 숯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즐기던 그 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참나무 타는 은은한 냄새와 함께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 가득 울려
퍼지던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굳건했기에
갑작스러운 발병 소식에도 조수호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꿋꿋하게 투병 생활을 견뎌내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가 병마와 싸우며 지쳐 있을 때, 그의 어린 딸이 정성껏 만든 'Never Give Up' 카드
한 장을 침대 옆에 붙여주었습니다. 작은 손글씨 하나에 위로받는다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엄지를 들어 보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 부부의 눈에 선합니다.




주장건 대양문화재단 이사장과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한일월드컵 관람(2002)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필요한 도구이기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 믿네."

그 강인한 의지가 담긴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남아,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사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여러 행성을 여행하며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마주합니다. "밤이 되면 별을 바라봐. 내가 그 별 중 하나에 있을 테니까. 그 별은 웃고 있을 거야."라는 문장은 사랑하는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 존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삶이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순환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존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죽음은 단지 육신이라는 옷을 벗는 소멸일 뿐, 영혼은 우리가 생전에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과 소중한 기억 속에 머물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혜옥 양현재단 후원회 초대회장,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참석(2011)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요즘도 가끔 꿈속에 조수호 회장이 찾아오곤 합니다. 꿈속의 그는 늘 우리가 함께했던 가장 눈부신 시절처럼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반겨줍니다. 그 미소가 너무도 생생하여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는 날이면, 아내와 나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꿈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움을 달래곤 합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마치 현실처럼 선명해, 그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는 이제 밤하늘의 별이 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을 비추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서 웃고 있듯, 그도 이제 모든 아픔 없는 곳에서 특유의 선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빛은 여전히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서 가장 정직하게 반짝이고 있으며,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따뜻한 흔적과 고결한 울림은 세월의 파도에 씻기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洋賢






7

# 최은정

양현재단 후원회장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 사람**

"Carpe Diem. And chocolate!"(오늘을 즐겨라. 초콜릿과 함께!)
집 근처 초콜릿 가게에서 지인에게 선물할 초콜릿을 포장하고 있는 점원의 손끝을 바라보던 순간, 최은정 양현재단 후원회장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문장이었다.
형부인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은 초콜릿을 좋아했다. 쉬는 날 집에 들르면, 해외 출장 중에 일부러 챙겨왔다며 유럽에서 이름난 가게들의 초콜릿을 꺼내놓고 함께 먹자고 권하곤 했다. 상자 안에는 저마다 다른 모양과 색깔을 지닌 초콜릿들이 보석처럼 담겨 있었고, 형부는 그중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 조카들의 입에 먼저 넣어주곤 했다.
언니인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은 단 거 좀 그만 드시라고 타박했는데, 그럴 때면 형부는 초콜릿을 입에 넣으며 "Carpe Diem. And chocolate! 몰라요?"하고 개구쟁이 같은 표정을 짓곤 했었다. 바깥에서는 한진해운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큰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초콜릿 한 개만 더 먹자고 아내와 소박한 실랑이를 벌이던 한없이 소탈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 그대로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바쁜 회사 일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 쓰면서도,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기보다는 어린 두 딸과 조카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한강 둔치에서 연을 날리고, 집 뒤 북한산으로 소풍 가기를 좋아했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형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성인이 된 아이들이 그를 한결같은 사랑과 다정함을 건네주던 아빠이자 이모부로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 역시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그와 함께했던, 보물처럼 반짝이는 기억**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말처럼, 갑작스러운 형부의 암 선고는 가족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담대했던 사람은 형부 본인이었다. 어린 딸이 만든 'Never Give Up'이라고 쓰인 카드를 침대 옆에 붙여두고, 마치 딸을 바라보듯 그 카드를 보며 자신은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오히려 언니를 위로했다. 평소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고 그것을 즐겼던 형부였으나 안타깝게도 투병이 길어지며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형부가 안쓰러워 언니는 식사를 늘 병실 밖에서 조용히 해결하곤 했다.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부는 "당신이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앞으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최은정 양현재단 후원회장,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2013)

남의 손을 타는 것을 불편해했던 형부를 위해, 언니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종일 홀로 곁을 지켰다. 병실에서도 형부는 노트북을 켜두고 이메일로 보고를 받으며 회사 일을 챙겼고, 언니는 그 옆에서 노트에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필사하며 남편의 쾌유를 간절히 기도했다. 병실 안에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펜 끝이 종이 위를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부부가 1년 넘게 서로를 챙기며 병마와 싸워내고 마침내 병세가 호전되어 형부가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 최은정 회장은 형부가 좋아하던 초콜릿을 사 들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때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던 형부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웃음은 마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달콤함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야속하게도 그 달콤한 평온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퇴원의 기쁨도 잠시,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다. 형부는 끝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형부가 떠난 후, 그가 남긴 현재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은 최은정 후원회장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졌다. 2007년 양현재단 후원회가 결성된 이후, 그녀는 형부의 뜻을 이어받아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밥퍼 봉사활동 현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추운 겨울이면 수백 포기의 김장을 버무리며 이웃의 겨울나기를 챙기는




최은정 양현재단 후원회장,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결식아동 급식 봉사(2017)

일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어린이병동을 찾아 아픈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나눔학교' 자원봉사에 몸을 보탰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묵묵히 이어온 이 활동들은 2023년부터 후원회장이라는 역할로 이어졌고, 그녀는 이제 형부가 남긴 뜻을 더 큰 책임감으로 마주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최은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를 볼 때면 문득 형부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곁에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푸바오라는 이름이 '행복을 주는 보물'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형부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그가 남긴 양현재단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최은정 양현재단 후원회장

초콜릿 가게의 문을 나서며 최은정 회장은 문득 생각했다. 유럽 어느 골목에서 가족들과 먹기 위해 초콜릿을 고르던 형부의 모습을.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 안에는 아마도 따스한 주말 풍경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그가 건네주던 달콤한 순간들은 여전히 선명하다. 인생의 가장 쓴 시간을 지날 때조차 그와 함께했던 기억들은 행복을 주는 보물처럼 반짝였고, 그 빛은 앞으로도 바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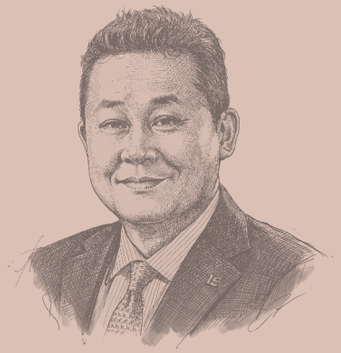
Chapter 3 **實踐 실천**

양현재단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해운·물류 연구 지원 및 장학, 의료 지원을 근간으로 삼고,
문화예술, 사회복지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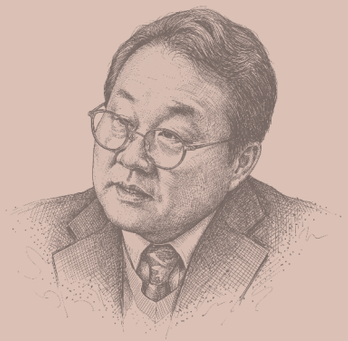
그 실천이 2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뜻에 공감하고 기꺼이 동행한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실무진은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자신의 일처럼 고민하고 헌신했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이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나눔의 전파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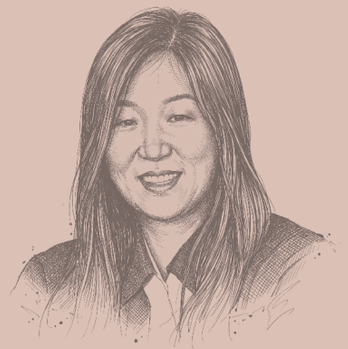
김종우 LS일렉트릭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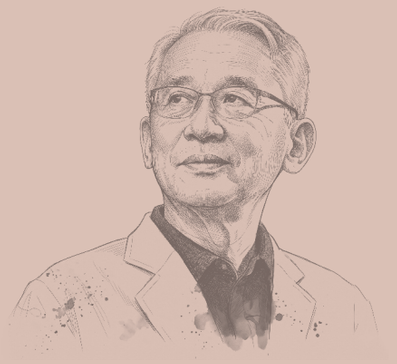
김태완 前 양현재단 사무국장



이주헌 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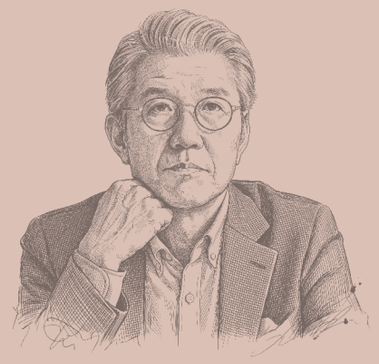
이숙경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 관장



임경수 정읍 고부보건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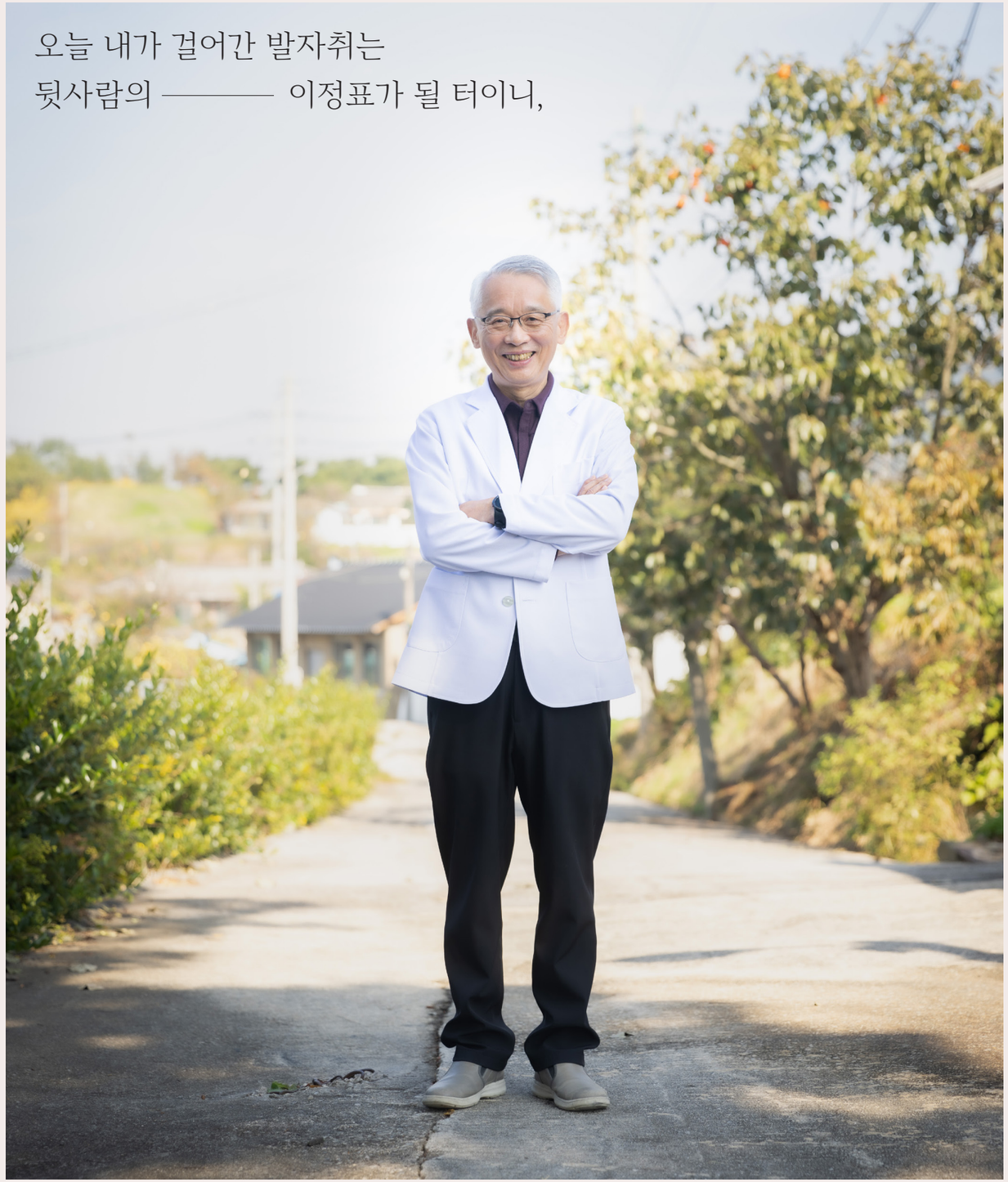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김홍균 양현재단 이사



박형근 펀타스틱 씨어터 대표




8

# 임경수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장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명예교수
前 정읍아산병원 병원장
前 양현재단 이사 및 이사장(2006.12.18.~2022.12.17.)
前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 실장
前 서울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
前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주임교수 및 응급실장

## 어떤 인연의 나비효과, 무의촌(無醫村) 보건지소장으로 이끌다

익산역을 떠난 기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탁 트인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임경수 소장은 읽던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징게맹게'[4] 너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펼쳐진 김제와 만경의 평야를 이 일대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수확을 마친 2025년 11월 말의 텅 빈 대지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작년 이맘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처음 보건지소로 출근하던 풍경도 꼭 이랬었다. 2024년 9월 정읍아산병원장직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두 달 만인 11월 정읍 고부보건지소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덧 1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모두가 만류했던 '대한민국 1호 시니어 의사'라는 생소한 길. 임경수 소장은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시니어 의사 제도의 첫 사례가 자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4] 김제와 만경을 가리키는 전라도 방언

2021년 말 서울아산병원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만 해도, 그는 퇴직만 하면 배낭을 메고 딱 2년 동안 전국의 산이란 산은 모두 돌아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퇴직이 임박해 올 무렵 뜻밖에도 정읍아산병원장 제안이 들어왔다. 말년에 지방 생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다. 그렇게 시작된 정읍과의 인연은 당초 병원장직 임기를 1년 더 연장해 3년 간의 근무로 이어졌고, 급기야 정읍 고부면의 보건지소장이라는 자리까지 그를 이끌었다. 그렇게 매주 월요일 새벽 기차를 타고 정읍으로 내려와 나흘을 근무하고 목요일 저녁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일상. 이 낯설고도 특별한 생활이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늦가을의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텅 빈 들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의 머릿속에 문득 사람 좋은 미소를 띤 한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사람,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것도 바로 이맘때였다. 돌이켜보니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의 보건지소장으로 일하게 된 지금의 삶 또한, 마치 조수호 회장과의 인연이 불러온 기분 좋은 나비효과처럼 느껴졌다.



고부보건지소에서 진료 중인 임경수 소장(본인 제공)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장으로 재직하며 1997년부터 조수호 회장 가족의 주치의를 맡았던 임경수 소장은, 2000년대 초 조수호 회장이 서울아산병원에서 투병을 시작한 이후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임경수 소장은 2006년 양현재단 설립 당시부터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라는 조수호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사장직을 맡아 양현재단의 모든 사회공헌활동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슬기로운 시골 의사 생활에 빠지다**

2021년 정읍아산병원장으로 부임한 임경수 소장은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지방 의료환경의 열악함과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겪으며 그 심각성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20년 가까이 양현재단에서 활동하면서 나눔의 정신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는,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곧장 팔을 걷고 지역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당시 정읍아산병원은 적자 누적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가 공석인 상태였다. 산모나 아픈 어린이와 신생아들은 진료를 받으려면 전주나 광주 같은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는 아산재단을 설득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를 각 두 명씩 초빙했고, 정읍시와 협의해 소아병실과 산후조리원 지원을 끌어냈다. 이러한 노력 덕에 마침내 2025년 봄, 정읍아산병원 '소아진료센터'가 개설될 수 있었다.

나아가 2022년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단비와 이슬비'를 창단해 매달 2~3회 농촌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해 여름 정읍시 기관장협의회장을 맡은 뒤에는 매달 한 차례 기관장들이 농촌봉사에 앞장서는 문화를 만들었다. 또한 정읍아산병원 동료 의사들을 독려해 정읍시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후원회 '달그락'에 정기 기부를 시작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그의 고군분투에 응답해 양현재단도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2021년 아산재단은 가정간호사제도[5]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망이 충분히 정비됐고, 집마다 자가용이 있어서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와 사뭇 달랐다.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 중 50%는 고령자인 데다, 그중 대부분이 70대 이상 독거노인이어서 운전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제적 여력도 없어 택시 이용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임경수 소장은 아산재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정간호사제도를 중단 없이 운영해 나갔다. 그러자 결국 가정간호 지원금이 끊겼고, 설상가상으로 17년 동안 가정간호사의 발이 되었던 차량 2대마저 고장이 나버렸다. 재단 측은 이미 중단 지침을 내린 사업에 쓰일 신차 구매를 승인하지 않았다. 절박한 상황에서 손을 내민 곳은 양현재단이었다. 양현재단은 가정간호사용 차량 3대를 구입해 병원에 기탁했으며, 직원 전문교육을 위한 장비와 시설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덕분에 현재 아산재단 산하 6개 지방병원 중 가정간호사가 운영되는 곳은 양현재단의 지원을 받은 정읍아산병원이 유일하다.

(5)——간호사가 농어촌의 장애환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를 제공하는 제도



양현재단, 정읍아산병원 가정간호사업 차량 지원(2025)

**밤, 감자, 고구마 '요만큼'이 주는 커다란 행복**

객차 스피커를 통해 잠시 후 정읍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일어섰다.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온 듯 알록달록 등산복 차림이 많다. 단풍객들에게 정읍은 잠시 머물다 가는 찰나의 여행지이겠지만, 그에게 이곳은 여전히 손길이 필요한

인구소멸지역이자 의료취약지역이다. 그래서 그는 저들처럼 배낭을 메고 산으로 떠나려던 계획을 기꺼이 몇 년 더 미루기로 했다. 기력이 허락하는 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힘이 되어주는 삶이 무엇보다 값지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무의촌 보건지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되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고부보건지소 전경

정읍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로 20여 분을 달리자, 붉은 벽돌로 나직하게 지어진 고부보건지소에 도착했다. 그의 진료는 진료실이 아닌 대기실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귀가 어두운 고령 환자들이기에, 직접 밖으로 나가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익숙한 일과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도 청진기보다 안부 확인이 먼저다. "잠은 잘 주무셨는지", "약은 빠지지 않고 잘 드셨는지" 손을 맞잡고 건네는 물음에 환자는 허리를 숙여 귀를 바짝 갖다 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번번이 동문서답이다. 그러면 임경수 소장은 허허 웃으며 처음부터 다시 묻곤 한다. 환자와 주파수가 맞을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대화는 이 작은 진료실만의 정겨운 소란함이다.
진료실을 찾는 이들이 꼭 몸이 아픈 환자들만은 아니다. 임경수 소장은 주민들이 건강검진 결과지나 처방전을 들고 오면, 마치 제 일처럼 일일이 해석해 주며 '동네 주치의' 역할을 자처한다.

어디 그뿐인가. 보건지소를 찾는 이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인지, 고부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여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노인대학을 찾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와 금연의 중요성을 목청껏 알린다. 여기에 매주 한 차례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전하는 일까지 빼놓지 않는다. 그는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을 쪼개 마을 곳곳을 누비는 와중에도, 그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일과가 있다.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오전 진료가 시작되는 9시까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진료실에서 고부보건지소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시간이다. 오늘 내가 내디딘 발자취가 장차 뒤에 올 이에게 이정표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그는 매일 아침 기꺼이 펜을 든다. 이 기록은 자신이 떠난 뒤 이곳을 맡게 될 또 다른 시니어 의사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진료 지침서다. 혹여 산부인과나 소아과 출신 의사가 오더라도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무리 없이 돌볼 수 있도록 환자 개개인의 특이사항과 진료 노하우를 상세한 그림과 함께 벌써 몇 개월째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민국 제1호 시니어 의사로서 자신이 먼저 겪은 시행착오가 후배들에게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그리하여 이 낯선 시골 진료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가슴 뛰는 도전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이 매뉴얼을 펼쳐 볼 후배 의사가 언젠가 진료실 한쪽 구석에 놓인 주민들이 수줍게 두고 간 비닐봉지와 마주하게 되기를 바란다. 밤 요만큼, 감자 요만큼, 고구마 요만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마음 앞에서, 자신이 베풀었다고 여겼던 인술(仁術)이 실은 주민들에게 빚진 사랑이었음을 문득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9

#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前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
前 양현재단 이사(2006.12.18, ~ 2020.12.17.)

**동병상련의 우정, 희망의 동행을 시작하다**

한겨울 거센 추위가 닥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른 것을 알게 되듯,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인연 또한 그러했다. 성심학교 선후배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두 사람은 경영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한겨울을 지나며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다.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는 개인적 교류를 넘어, 세상에 꿈과 용기를 전하는 희망의 에너지로 확장되었다. 2006년 양현재단 설립 멤버이자 이사직에 참여한 김은선 회장은 2020년까지 14년 동안 최은영 회장과 함께 재단의 성장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보령제약 창업주인 부친 김승호 회장의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공존공영'의 철학으로 설립된 보령중보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장애아동, 소아암 환아 등에게 음악을 통한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지평을 넓혔다. 이처럼 두 사람은 양현재단과 보령중보재단의 설립을 통해 기업인으로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공통분모를 만들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쌓아온 우정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술(仁術)이 남긴 울림이 나눔으로 이어지다**

아프리카 수단의 척박한 땅에서 교육과 의료 활동의 꽃을 피운 고(故) 이태석 신부, 케냐의 오지에서 원주민들의 어머니 '마마웨뚜'로 살아온 유 루시아 수녀, 그리고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의탁자와 노숙인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 온 성가복지병원 박용건 내과 과장.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라는 사실이다.

보령은 1985년 대한의사협회와 손을 잡고 전국 각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인술(仁術)을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보령의료봉사상을 정식으로 제정하였다. 지난 40여 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이 상은, 그동안 헌신적인 노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치하를 받지 못했던 의료인들의 업적을 발굴해 내고, 진정한 인술의 가치를 사회 전면에 알림으로써 우리 사는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국내 제약·의료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
참석(2025)

김은선 회장은 매년 시상식에 참석하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의료 취약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준 수상자들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그들의 삶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나눔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의 무게에 대해 깊이 고뇌하였다. 특히 시상대에 오른 이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다."라는 겸허한 소감은 그의 가슴속에 언제나 묵직한 울림과 경외심을 남겼다.

이러한 감동은 자연스럽게 경영 철학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의술(醫術)을 인술(仁術)로 승화시킨 수상자들처럼, 보령 역시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업에 주력하여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보령의 가장 준엄한 목표를 달성하는 길임을 다시금 되새겼다. 기업 본연의 업(業)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넘어, 김은선 회장은 보령중보재단을 통해 본사 및 주요 생산시설이 위치한 종로구, 안산시, 예산군 등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쏟는 활동은 바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다. 보령중보재단은 아이들의 정서적 풍요와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창단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결성 당시 악기 구입비 전액 지원은 물론, 주 1회 레슨비와 연 3회 개최되는 작은 음악회 및 정기 연주회 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아이들의 꿈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왔다. 오케스트라 활동은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악기를 선택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중도 이탈자 없이 모두가 성실히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처음엔 서툴기만 하던 아이들이 마침내 무대 위에서 당당히 연주를 마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은선 회장은 형언할 수 없는 대견함과 동시에 마음 한편의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곤 한다. 2025년 현재 이 활동이 종로구 지역아동센터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는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나눔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사회공헌 재단이 뜻을 모으는 연대가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토양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보령중보재단,
지역아동센터 '작은 음악회' 후원

이러한 보령중보재단의 진심 어린 행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이라는 면에서 양현재단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와도 그 결을 같이한다. 비록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희망인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김은선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의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1994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수혜국'의 지위를 벗어나, 비로소 어려운 나라를 돕는 '공여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 황폐한 시절에 유년기를 보낸 김은선 회장에게는 단순한 국가적 성취를 넘어선, 실로 가슴 벅찬 시대적 변화였다.
김은선 회장은 유니세프를 통해 해외 재난 지역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을 후원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를

느끼며 살아왔다. 특히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사건은 2023년 초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이었다. 약 18만 명의 사상자를 낸 유례없는 비극 속에서 유니세프는 가장 취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수, 의약품, 영양식품, 방한용품 등을 공급하는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 당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성금 모금을 시작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개인 기부자와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기부금과 구호 물품을 보내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베푸는 인격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했음을 실감하였다.

최근 김은선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그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공헌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양현재단 명지병원 '희망의 벽'
제작 봉사 참석(2010)

**따로 또 나란히, 동행(同行) 동행(同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김은선 회장의 신념은, 양현재단과도 결을 같이한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양현재단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령중보재단은 서로 소속도, 이름도 다르지만,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양현재단이 '희망의 벽' 프로젝트, 환아들을 위한 미술치료 교실 등 미술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다면, 보령중보재단은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등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키워왔다.

장르는 달라도 두 재단이 지향하는 본질은 결국 하나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예술이 아이들의 삶에 닿을 때 비로소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기업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양현재단의 행보에 김은선 회장이 누구보다 깊은 응원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란히 걷는 동반자로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洋門




10

# 김종우

LS일렉트릭 고문

前 양현재단 이사(2022.10.7. ~ 2026.6.11.)
前 LS일렉트릭 사장, COO
前 농심켈로그 대표이사 사장
前 켈로그 대만, 홍콩 총괄사장
前 웅진식품 대표이사 사장
前 디아지오 북아시아 대표이사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저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끊임없이 자문해 왔습니다. 그저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이 제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가는지 성찰하는 과정이 저를 나눔과 경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발을 디뎠던 모든 곳에서, 저는 그 의미를 찾고 배우는 과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자, 그렇게 이어진 11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 '아동 수출국'이라는 뼈아픈 불명예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약 2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고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많지만, 이들은 여전히 낯선 언어와 문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11년 전, 해외 근무 시절 마주했던 입양인들의 애틋한 사연들을 계기로 저는 이들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자'며 첫발을 내디뎠던 해외입양인연대와의 인연이 어느덧 강산이 변하는 세월만큼 이어졌습니다. 저는 2025년까지 3년간 이사장직으로 재임하며 단체를 섬겼고, 현재는 고문으로서 묵묵히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체는 해외 입양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고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찾도록 돕고, 이들의 간절한 염원인 친부모 찾기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에는 입양인 출신의 사무총장님과 호흡을 맞추며, 이들이 한국 땅에서 자아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오히려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품을 파는 일보다 중요한, 사람을 살피는 일**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글로벌 기업의 경영인으로 보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 있으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어떻게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여성가족부와 손을 잡고 '디아지오재단'을 설립한 것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바로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엄마와 아이가 안심하고 지낼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한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정이 온전히 일어서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복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류회사 대표로서 제품 판매에 주력하면서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일 역시 외면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상생을 위해, 2009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음주 문화를 전하는 '쿨 드링커'(Cool Drinker) 캠페인을 제안하여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약 10년간 이어지며 청년들 사이에 건전한 음주 습관을 뿌리내리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김종우 해외입양연대 이사장,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소식 참석(2025)




김종우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 여성가족부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MOU 체결(2013)

**세계 무대를 누빈 여정, 그리고 원팀(One-team)의 든든한 에너지**

최근까지 LS일렉트릭의 사장으로서 보낸 지난 4년은, 이러한 저의 삶의 지향점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뜨겁게 발현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력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저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겠다는 사명감을 품었습니다. 낯선 해외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우리 회사의 훌륭한 제품력과 임직원들의 능동적인 고객 대응 및 서비스 마인드를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쉼 없이 누비며 글로벌 고객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던 그 시간들은 참으로 가슴 벅찬 도전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소통과 팀워크가 살아 숨 쉬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F.A.S.T'라는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즐겁게 일하고(Fun), 능동적이고 열린 소통을 나누며(Active & Open Communication), 스타트업처럼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개척 정신을 품고(Startup DNA),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원팀(Teamwork)으로 나아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선진 조직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고, 회사 매출과 이익 또한 고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성과는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미 있고 행복한 경험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양현재단과 함께 나누었던 감사한 시간**

이처럼 일터와 일상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던 중, 2022년 양현재단의 이사로 합류하며 재단과 귀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26년 6월부로 임기를 마쳐 지금은 이사직을 내려놓았지만, 지난 4년간 양현재단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은 제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숱한 변화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초심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해온 재단과 다른 이사님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깊은 존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재단에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과정은, 제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쌓아온 작은 경험과 시선을 공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참으로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채워 나가려 합니다. 제가 딛는 모든 발걸음이 저 자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나에게 이토록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각지대를 밝히는 양현재단의 걸음을 늘 가슴 깊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洋




11

# 김태완

부동산업 관련 회사 컨설팅 업무

前 양현재단 사무국장(2014.11.01. ~ 2022.6.30.)
前 한진해운 근무(감사실, 비용심사팀, 벌크선영업팀, 기획팀, 해외주재원)

"처음 재단에 부임하면 누구나 의욕에 앞서 활동 영역을 넓혀보려는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과욕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현재의 활동 범위 안에서 아직 우리의 시선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양현재단에 사무국장으로 출근한 첫날 당시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내게 건넨 당부였다. 그때 나는 한진해운에서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에서 1년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겠노라 마음먹고 있던 차에 기적처럼 찾아온 양현재단의 부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자 감사였다.
최은영 회장의 당부는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단이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방향이자 실무를 책임질 사무국장이 견지해야 할 태도였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재단이 일궈온 나눔의 밭을 더 깊이 일구기로 했다. 약 8년여의 재직 기간 동안 나는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져 천진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고,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정한 '양현미술상'을 운영하며 예술가들의 창의적 영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신선한 울림을 경험했다. 또한 해운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위해 연구 과제를 후원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내가 몸담았던 해양물류 산업의 발전에 작게나마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돌이켜보니 그 다양한 사업과 봉사의 순간들이 마치 한 폭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잊지 못할 꿈사랑학교 졸업식**

여러 활동 중에서도 유독 가슴 깊이 남은 기억은 '꿈사랑학교' 지원 사업이다.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가 운영하는 꿈사랑학교는 희귀·난치병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학교로 향하는 문이 닫혀버린 환아들을 위한 소중한 배움터다. 환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화상 수업을 통해 세상과 연결해 주고, '내일'이라는 꿈을 꾸게 하는 이곳은 단순한 학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양현재단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여정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과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힌 환아들이 세상 밖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정서적·문화적 경험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김태완 양현재단 사무국장,
2014학년도 꿈사랑학교 수료식 참석

어느 해 1월, 유난히 시린 바람이 불던 날 열린 꿈사랑학교 졸업식의 풍경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장기 치료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교실 책상에 앉아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아이들이 병실과 집을 벗어나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병마와 싸우며 모니터 화면으로만 만나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실제로 마주한다는 설렘과 기대가 졸업식장에 가득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끝내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그해 꿈사랑학교에 재학 중이던 800여 명의 학생 중 250여 명은 건강을 회복해 원적 학교로 복귀하는 기쁨을 누렸지만, 20여 명의 학생은 끝내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졸업식 날, 내 마음속에는 이 자리에 당당히 선 아이들에 대한 대견함과 먼저 떠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아이들에게 허락된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절박한 것인지를 다시금 실감했다.
양현재단이 2차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체험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등 야외 학습을 꾸준히 고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아이들에게 병실의 정적 대신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을 단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실함은 문예창작대회와 문집 발간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문예창작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투병의 고통을 글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재능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아이들의 문집은 세상 그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날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오른 한 여학생의 소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3년 동안 꿈사랑학교의 화상 수업을 놓지 않았던 그 학생은 마침내 전문대 보건행정학과 합격증을 손에 쥔 채 강단에 섰다.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줍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김태완 양현재단 사무국장,
2014년도 꿈사랑문예창작대회 시상

"병 때문에 건강은 잃었지만, 꿈사랑학교에서 정말 소중한 선생님과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가 내민 작은 손길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얼마나 큰 희망으로 자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내가 재단에서 보낸 8년의 시간 동안 가장 고귀하고도 눈부신 울림으로 남아 있다.

**양현재단이 일깨워 준 삶의 방향**

꿈사랑학교와 같은 지원사업을 이어오며,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오는 동안 남들보다 특별히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힘들거나 어렵게 지내본 적은 없었다. 특출나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내게 세상은 늘 온화했다. 고통이나 결핍은 어쩌면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현재단에서 보낸 8년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탄한 길' 밖의 세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였다.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했고, 동시에 경이로웠다.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온기를 갈구하는 보육원 아이들부터, 평생을 헌신하고도 차가운 방 한 칸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독거노인들까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나는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삶은 내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늘진 곳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는 이들을 보며, 내가 누려온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 감사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공부였다.

이처럼 양현재단에서의 시간은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을 일깨워 준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다. 10년 전 내가 제작에 참여했던 재단 10년사 『양현 10년 10문 10답』의 에필로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길이 멀다고 주저하지 않고, 길이 험하다고 좌절하지 않고, 길이 없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길을 찾고, 만들고, 길과 길을 연결하면서 양현이 가고자 했던 길, 양현이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헤쳐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종이 위에 새긴 뒤 또 한 번의 10년이 흘러 어느덧 재단은 20주년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니 그 여정은 결코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다.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과 어르신들의 온기, 그리고 재단 가족들의 진심이 모여 함께 만든 시간이었다. 앞으로 30년, 50년, 그리고 100년 후에도 재단이 걸어갈 이 길이 때로는 더디고 험할지라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나는 이제 현직을 떠나 재단 밖에 서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다. 어디에 있든 양현이 만들어갈 따뜻한 변화를 지켜보며 그 여정을 변함없이 응원하며 살아가고 싶다. 洋門





# 양현과 함께한 시간, 돌아보니 모두가 사랑이었다

12

## 이주헌

미술평론가

前 서울 미술관 관장
前 양현재단 이사(2009.4.8.~2022.12.17.)
前 학고재 갤러리 관장
前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제12회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저서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지식의 미술관』『역사의 미술관』『신화의 미술관』 등 다수

2009년, 양현재단에 합류하게 된 것은 미술계에 몸담아온 내게 무척 설레는 일이었다. 재단은 해양수산부 인가 법인으로서 해운·물류 연구지원 사업을 뼈대로 삼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료와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축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다. 미술계의 일원으로서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재단의 행보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값진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그 시절 재단에서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보석 같은 인품을 지닌 분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고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권이었다. 돌아보니 모두가 사랑이었다.

**강익중 작가와의 인연이 빚어낸 '희망의 벽'**

재단에 합류한 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이가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내온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동기로 인연을 맺은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깊은 유대를 이어왔다. 그가 걸어온 길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던 나는, 그의 예술세계가 재단의 의료지원 사업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 있었다.

당시 강익중 작가는 3x3인치 손바닥만 한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를 주제로 작품을 구상하며 어린이들의 그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본래 <10만의 꿈>이라는 타이틀 아래, 각자의 꿈을 그린 남한 어린이 그림 5만 점과 북한 어린이 그림 5만 점을 함께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북측 그림이 끝내 오지 못해 남한 어린이들의 그림만으로 절반의 전시를 치렀다.

아이들의 꿈조차 한자리에 모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을 연결해 질병과 가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순결한 꿈이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은 2001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전시된 <Amazed World>로 결실을 맺었다. 135개국 3만 4천 명 어린이의 꿈이 모여 일궈낸 장엄한 풍경이었다.



이주헌 양현재단 이사, 제주한라병원 '희망의 벽' 제막식 참석(2011)

이런 행보의 일환으로 강익중 작가가 특별히 애착을 갖고 진행하게 된 것이, 바로 '희망의 벽' 프로젝트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희망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병의 고통을 잠시 잊고 더 큰 꿈을 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았다.
그 첫 결실은 2006년 미국 신시내티 소아병원에 설치된 대형 벽화였다. 24개국 환아들이 보낸 그림 1,600여 점이 하나로 이어져 길이 12m, 높이 2.5m의 웅장한 작품으로 탄생했다.
마침 양현재단에서도 의료 지원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구상 중이었는데, 그 비전을 구현하기에 강익중 작가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었다. 재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던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재단과 그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우정이 재단의 선한 의지와 만나,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경험은 지금도 내게 각별한 의미로 남아있다.
그렇게 양현재단의 후원으로 2010년 2월 충남대병원 소아병동에 높이 2.94m, 길이 10.33m에 달하는 국내 첫 '희망의 벽'이 세워졌다. 이후에도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 명지병원(2010년), 제주한라병원(2011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2016년) 등에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었다. 환아들과 지역 어린이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그려 넣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커다란 벽화를 완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픈 아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양현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작가만을 위한 진정성 있는 후원**

직접 참여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양현미술상'의 제정과 운영은 미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었다. 미술가를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작품을 구매하거나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후원자의 존재만 부각되거나, 정작 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7회 양현미술상 수상자 '아피찻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왼쪽)과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

양현미술상은 이러한 통상적인 방식과는 결을 달리했다. 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단은 그들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서 조용히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택했다. 세계 주요 미술관의 관장과 디렉터급 큐레이터들이 심사에 참여해 작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전시 기회와 함께 상당한 규모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는 작가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어주었다.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아피찻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등 수상자들 가운데 현재 국제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누리는 인물들을 보면 이 상의 기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잘 알 수 있다. 물론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인 데다 국내에서는 단발적인 보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단의 이러한 공헌에 대해 대중이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현미술상은 국제 미술계의 리더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상으로 착실히 성장해 왔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홍보보다 세계 미술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나는 이 상에 무척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아쉽게도 현재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에 들어갔지만, 언젠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상식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던 '아트렉처'를 독립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한국을 찾아 자신의 작업 세계를 직접 나누는 경험은 젊은 미술학도들에게 매우 귀한 배움의 기회가 된다. 일본에서 열린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아트렉처'에서 큰 자극을 받았던 대학원생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가 훗날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아트렉처'는 우리 미술 학도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키워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강연을 맡은 작가에게도 이는 특별한 여정이 된다. K-컬처의 산실인 한국을 직접 방문해 역동적인 문화 트렌드를 직관하고,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채우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사랑이 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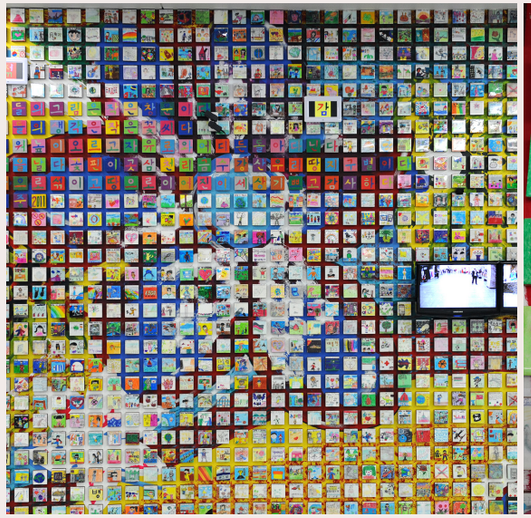
양현재단은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방식의 기여를 이어왔다. 다른 이들이나 조직에서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나눔이 그 증거다.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어진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제 잇속에 밝고 이해타산이 빠른 이를 지혜롭다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가장 큰 지혜는 결국 어진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공자의 말처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智者樂水 仁者樂山)고 하지 않았나.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어진 마음이 재단의 정신적 뿌리로 굳건히 자리하는 한, 양현재단의 이웃 사랑 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 보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상황들,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이 자연과 우주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양현재단을 통해 맺은 인연과 함께한 일들은 내 인생 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과도 같다.
재단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었다.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고, 나 또한 그분들처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한 자극을 받았다. 내게 소속감과 기쁨을 주었던 양현재단에서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며, 이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2010년 2월 | 충남대병원 '희망의 벽' 제막



2010년 12월 | 명지병원 '희망의 벽' 제막



2011년 11월 | 제주한라병원 '희망의 벽' 제막




2016년 11월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희망의 벽' 제막



양현미술상이 남긴 울림,
예술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

13

# 이숙경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 관장

맨체스터대학교 큐레이토리얼 프랙티스 정교수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일본관 <모리 유코> 큐레이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예술감독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준호 & 문경원> 커미셔너 및 큐레이터
前 양현미술상 컨설팅(2013~2017년)
前 영국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

2023년 열린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로 전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6년 이후 17년 만에 한국인으로서 처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을 맡은 이숙경 휘트워스 미술관 관장(당시 영국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은 전시의 화두를 노자의 『도덕경』에 등장하는 '유약어수'(柔弱於水)에서 빌려왔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도 결국 부드러운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은 물이지만, 그 부드럽고 여린 태도는 긴 시간을 거쳐 끝내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고야 만다. 누군가의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어 감동을 주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변화시키는 미술의 '부드러운 태도'야말로 바위를 뚫는 본질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이숙경 관장은 지난 2013년, 제6회 양현미술상의 자문 역할을 맡으며 양현재단과 첫 인연을 맺었다.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영국 최대 공립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가 미술상 운영 전반을 총괄해달라는 재단의 요청에 선뜻 받아들인 데에는, 양현재단이 미술과 예술가를 대하는 남다른 '태도'가 있었다.

**예술의 본질을 받드는 이름 없는 지원**

양현미술상은 국적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 미술계에서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며 향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촉망받는 중견 작가들을 발굴해 왔다. 특히 현존하는 미술상 중 최고 수준의 상금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수여한다는 점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후 지원이었다. 재단은 수상 후 3년 이내에 작가가 원하는 시기라면, 전세계 어디든 작가가 꿈꾸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작가가 현실적인 제약 없이 오직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지극히 획기적이고도 사려 깊은 지원 방식이었다.



양현미술상 상패(2017)

양현재단은 이토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재단이나 기업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소위 '생색내기식' 홍보를 철저히 경계했다. 오히려 재단은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며, 모든 조명이 오롯이 작가와 그들의 작품 세계를 대중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데에만 집중되도록 운영했다. 세계 미술계의 수많은 후원 모델을 지켜봐 온 이숙경 관장에게, 이렇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예술의 본질만을 묵묵히 받쳐주는 '이름 없는 지원'은 형언할 수 없는 감명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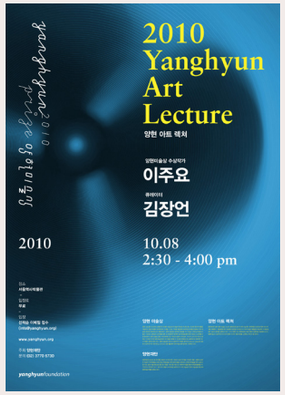
작가의 예술적 정체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예술이 지닌 선한 영향력을 굳게 믿는 진정성이야말로 양현재단이 미술상에 부여한 고귀한 취지였다. 작가와 작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존중의 자세와 '부드럽지만 강한 미술의 힘'을 신뢰하는 재단의 확고한 철학은, 이숙경 관장이 해를 거듭하며 미술상을 직접 운영하고 진행할수록 더욱 강렬한 실체로 다가왔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양현재단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단순히 상을 주는 행위를 넘어, 국제 미술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후원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

**세계적 거장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수함**

국제 미술계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는 세계적 거목들에게 양현미술상의 심사위원을 부탁할 수 있었던 원동력 또한 '오직 작가와 작품만을 위한다'는 순수하고 투명한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양현미술상의 이러한 태도와 취지에 매료된 미술계의 거장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위원직을 기꺼이 수락했다. 그들은 재단의 진심에 감동하여 단순히 심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심사위원을 정성껏 추천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다. 이숙경 관장은 2017년 제10회 양현미술상까지 5년 동안 심사위원 초청부터 수상 작가 선정, 시상식 기획, 작가 강연 등에 이르기까지 미술상 운영 전반을 세밀하게 이끌었다. 국제 미술계의 흐름을 꿰뚫는 그의 전문성은 양현미술상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1회 양현미술상 포스터(2008)



제3회 양현미술상 포스터(2010)

세계 현대미술계의 '심장부'인 테이트 모던에서 본업을 이어가는 바쁜 와중에도, 그는 양현재단과 함께 호흡하며 당시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현 유수홀딩스 회장)과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이숙경 관장은 최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던 인물인지 느낄 수 있었다.

한번은 테이트 모던에서 개최된 프랑스 거장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전시를 찾은 최은영 회장으로부터 "조수호 회장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가가 바로 마티스였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묘한 감동에 젖어 들었다. 거침없는 색채와 생명력 넘치는 유기적인 형상, 추상의 언어를 빌리면서도 그 안에 따스한 서정성을 잃지 않는 마티스의 예술 세계가 어쩌면 생전의 조수호 회장이 지향했던 삶의 정서와 맞닿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기도 한 것이다.

예술을 대하는 양현재단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결국 세계 미술계의 견고한 바위를 뚫고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이숙경 관장이 5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은 그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술의 진정한 힘을 믿는 이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기억되고 있다. 洋



40년 베테랑 전직 외교관의 ——— 어느 강연회 참관기

14

# 김홍균

양현재단 이사

前 외교부 제1차관
前 주독일대사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25년 10월 21일 오후 2시, 소공동 조선호텔. 박한일 양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이날의 강연자인 송길영 작가가 연단에 올랐다. 시대의 마음을 캐는 사람, 이른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로 불리는 작가답게 그의 등장은 객석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재단의 초대로 객석에 앉은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 또한 작가의 이력을 미리 살피며 오늘의 화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강연이 무르익자 송길영 작가는 특유의 예리한 통찰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냈다. 『핵개인의 시대』와 『호명사회』 등 '시대예보' 시리즈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읽어온 그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사회의 변화를 담담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로 풀어놓았다.

**막전막후(幕前幕後) 외교관 4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다**

김홍균 전 차관이 이날 강연에 참석하게 된 것은 양현재단과 맺어온 신뢰와 유대 덕분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동창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양현재단 이사장)의 권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단 이사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뜻을 보탠 바 있다. 그 인연이 이어져 송길영 작가의 신간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열린 재단 설립 19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 귀빈으로 초청받게 된 것이다.(6)

(6) 2026년 6월 현재, 김홍균 전 차관은 양현재단 이사로 재취임하였다.

2025년 6월 외교부 제1차관직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홍균 전 차관은 지난 몇 개월간 산적한 일들을 정리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차에 오랜만에 강연장을 찾아 객석에 자리하게 되었다.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조직과 개인의 변화라는 묵직한 담론을 다루는 강연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리 한결 가볍고 편안했다. 이제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지적 호기심을 따라 강연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0년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그는 늘 한반도 정세의 격랑 한가운데 서 있었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그리고 외교부 제1차관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나온 자리마다 국익을 위한 엄중한 현안과 책임이 뒤따랐다.
그에게 강연회나 연회는 지적 유희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었다. 상대의 의중을 읽고 국익을 관철해야 하는 협상의 현장이었으며, 때로는 소리 없는 외교전이 벌어지는 치열한 무대였다.
특히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았던 시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민감한 현안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굵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그는 그때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며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했고, 한미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2016-2017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는 새벽 출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위기대응전략을 마련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와 긴밀히 협의해 대북 제재 공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은 그가 공들여온 국제 협력 시스템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2016)

이러한 수많은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은 김홍균 전 차관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대표적이다. 당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시종일관 차분함을 유지하며 한국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가 자신의 격앙된 태도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일화는 외교가에서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다. 2024년 외교부 제1차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시다발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관 부재 시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는 임명 직후부터 이른바 '전투모드'로 일과를 보내야 했다.

**오롯이 한 사람의 청중이 된 시간**

긴박한 막전막후(幕前幕後)의 외교 무대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40년이었다. 늘 팽팽한 긴장 속에 몸을 던져온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역할의 무게 없이 대중 속에 섞여 강연에 몰입하는 시간은 처음엔 다소 생경하게 다가왔다. 그는 문득 주독일대사로 임명되기 전 양현재단 이사로 재직하며 이사진들과 교류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치열한 외교 현장을 잠시 벗어나 다양한 이들과 지적·인격적 자극을 주고받았던 그 시기는, 쉼 없이 달려온 공직 생활 중 유일하게 숨을 고를 수 있었던 소중한 쉼표로 남아 있다. 그때의 기억 덕분일까. 어느덧 낯섦은 사라지고, 오롯이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누리는 이 시간이 깊은 위로와 여유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인도네시아 방문(2025.5.)

연단에서는 송길영 작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는 AI 시대가 기존의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질서를 넘어 대마필사(大馬必死)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바야흐로 '경량문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진단했다. 거대 조직이 독점하던 권력이 해체되고, AI를 민첩하게 활용하는 작은 집단이나 개인이 새로운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강연을 경청하던 김홍균 전 차관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외교의 본질을 되짚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부나 국제기구 같은 전통적 주체를 넘어, NGO와 공익재단 등 민간 영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란 결코 어느 한 국가의 독식이 아니라, 치열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양현재단의 철학은 상생을 지향하는 외교의 정신과 맞닿아 있었다.

재단이 지향해 온 가치들이 쉼 없이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사회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와 세계의 번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민간 외교'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재단 참여를 권유받았을 때 흔쾌히 이사직을 수락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평생 쌓아온 외교적 경험과 지식을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환원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비록 재임 기간이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 마음만큼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재단이 품은 가치의 무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다가왔다.




김홍균 전 차관, 양현재단
'송길영' 작가 강연 참석(2025)

"앞으로 우리 세상은 빠른 추격자가 사라지고, 빠른 전환자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송길영 작가의 말은 김홍균 전 차관의 마음속에 조용한 파동을 일으켰다. 어쩌면 자신 역시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재단 이사회에서 인연을 맺었던 임경수 정읍 고부보건지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의료 현장을 지켰던 이가 은퇴 후 지방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 소박하지만 위대한 봉사의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깊은 경외심을 남긴 바 있었다. 임경수 소장의 행보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전환'의 모습이 아닐까.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재단 활동과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팬데믹으로 멈췄던 지난날의 아쉬움을 채우고 우리 사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후 강연이 마무리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홍균 전 차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한 시대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자'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 각본 없는 무대 위로 열린 인생 제2막

15

## 박형근

펀타스틱 씨어터 대표

前 양현재단 감사(2008.6.16. ~ 2015.6.30.)
前 SC제일은행 부행장

개성 넘치는 카페와 술집마다 긴 줄이 늘어선 용산우체국 뒷골목. 이른바 '용리단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요즘 서울에서 북적이는 동네 중 하나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낯선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임프라브(Improv, 즉흥극) 전용 극장 '펀타스틱 씨어터'(Funtastic Theater)다. 이곳은 관객이 던진 제시어에 따라 배우들이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즉흥극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실험적인 공간을 일군 박형근 펀타스틱 씨어터 대표의 이력 또한 평범치 않다.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와 국내 금융기관에 30년간 몸담았던 베테랑 금융인 출신으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7년간 양현재단 감사를 지내며 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2015년 은퇴 이후 그는 그간의 이력과는 전혀 결이 다른 무대로 자리를 옮겼다.
마음에 품고 있던 무대를 향한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접 극장을 차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30년 베테랑 금융맨의 마음을 사로잡은 즉흥극, 임프라브**

박형근 대표가 임프라브를 처음 접한 것은 금융권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던 시절이었다. 당시 그는 조직 내 경직된 소통 구조를 깨고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낼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프라브라는 생소한 예술 장르를 알게 되었다.
임프라브는 대본·줄거리·설정 없이 배우가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즉흥연기를 뜻한다. 흔히 관객의 참여와 배우의 창작이 결합된 공연 형태로 알려져 있다. 대본이 없기에 일반적인 리딩 연습은 존재하지 않지만, 무대에 서기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훈련이

요구된다. 생각을 확장하는 법부터 자신감 있는 발화, 나아가 상대의 의중과 대화의 미묘한 맥락을 포착하는 소통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프라브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조직의 유연한 협업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확신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코미디 사관학교'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의 I.O(Improv Olympic)를 찾아가 임프라브를 몸소 체험했다. 아무런 약속 없이도 오직 서로의 호흡만으로 장면이 이어지고 서사가 완성되는 과정에 참여하며 그는 임프라브가 지닌 새로운 소통 방식의 실효성을 거듭 확신했다.



편타스틱 씨어터 공연 기념사진

이 경험은 그의 삶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임프라브의 태도는, 오랜 세월 오차 없는 계산 속에 살아온 그에게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 미지의 영토로 발을 내딛게 한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양현재단에서 배운 이타심, 인생 2막의 동력이 되다**

퇴직과 동시에 망설임 없는 도전이 시작되었다. 2016년 서울 원효로 숙명여대 인근에 50석 규모의 '코리아 임프라브 씨어터'(Korea Improv Theater)라는 작은 극장을 열었다. 30년간 금융인으로서 쌓아온 감각은 무대 위에서도 유효했다. 극장은 개업 3년여 만에 규모 확장을 고려할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인생의 절반을 숫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온 그가 정반대의 지점인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을 즐기는 예술가의 길을 택할 용기를 얻기까지에는 양현재단과의 만남도 큰 몫을 했다고 그는 말한다.

"양현재단에 합류하기 전부터 행복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에는 반드시 이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함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와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고 깊어졌고, 특히 각기 다른 전문성을 지닌 이사진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게 더없이 값진 배움이자 영광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의 감사를 지내며 마주한 세상은 그에게 숫자와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타심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효율과 수익이 최우선인 금융 현장과는 달리, 누군가의 삶을 지지하고 사회적 온기를 만들어가는 재단의 활동은 그가 품어온 행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재단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나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하는 행복'의 실체를 각인시켰고, 이는 곧 타인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임프라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다.

**침묵을 대화로 바꾸는 '예스(Yes), 앤드(And)' 법칙**

2019년 박형근 대표는 더 넓은 가능성을 담기 위해 현재의 위치로 극장을 확장 이전하며 '펀타스틱 씨어터'라는 새 간판을 걸었다. 이전한 지 석 달 만에 맞닥뜨린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는 혹독했지만, 지금은 매주 정기공연을 이어갈 만큼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형근 펀타스틱 씨어터 대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교육(2024)

현재 그는 극장 운영뿐만 아니라 임프라브를 기업의 팀워크 강화 교육이나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조직이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통의 단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가 강조하는 임프라브의 제1원칙은 '예스(Yes), 앤드(And)'다. 상대의 아이디어를 일단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Yes), 그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And) 소통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Yes'는 무조건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가 내놓은 제안을 편견 없이 인지하고 존중하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자신의 이야기가 비난받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그건 좀 아니지"라는 핀잔

대신, “좋네요. 거기에 이런 걸 더해보면 어떨까요?”라는 대화가 이어질 때,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에 침묵하던 이들이 서로의 말을 징검다리 삼아 신나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진짜 소통’에 몰입한다.
그는 이러한 대화가 만들어내는 힘을 믿는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회의실이 활기찬 대화로 채워지는 이 극적인 변화. 이것이 그가 여러 조직에 임프라브를 전파하는 이유이자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다.

**온 세상이 무대가 되는 그날까지,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가 이토록 교육 현장에 진심인 이유는 또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이 여전히 경직된 틀 안에 머물러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삶과 일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이 가진 힘을 빌려 사람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통과 협력, 창의성과 자기표현처럼 책상 앞에서는 제대로 배우기 힘든 가치들을 무대 위에서 직접 경험하며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에 수백 개의 펀타스틱 씨어터를 세우겠다는 야심 찬 꿈은 극장 입구에 걸려 있는 다음과 같은 영문 글귀처럼 당차고 거침이 없다.



박형근 펀타스틱 씨어터 대표

“All the world’s a stage, and we are merely players. Forget the lines, miss the cues, Yet rise again with naught to lose. So let the chaos come, we’ll rise, For we embrace and live through improv.”
(온 세상은 무대요, 우리는 그저 배우일 뿐. 대사를 잊고 신호를 놓칠지라도, 잃을 것 하나 없으니 기꺼이 다시 일어서리라. 어떤 혼돈이 밀려와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즉흥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기에.)

박형근 대표는 자신이 일궈온 ‘즉흥의 철학’이 양현재단을 통해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맞물려 이러한 시도들이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기존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배움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예기치 못한 갈등 앞에서도 유연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이 그의 굳건한 믿음이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즉흥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 가능성을 그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

Chapter 4 **共感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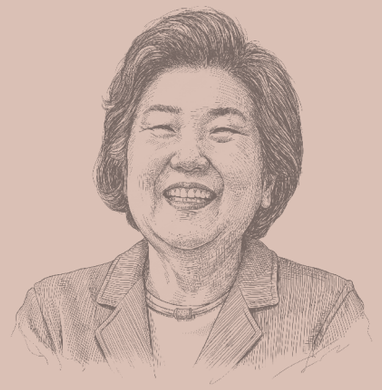
양현재단의 선한 영향력은
재단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재단의 진심 어린 행보에 깊이 공감한 이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야말로 양현재단의 뜻이
재단 밖에서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값진 증거이며,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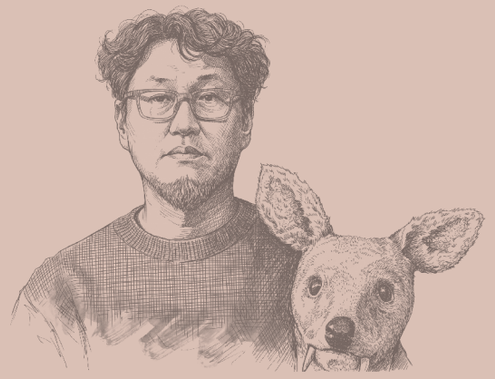
법진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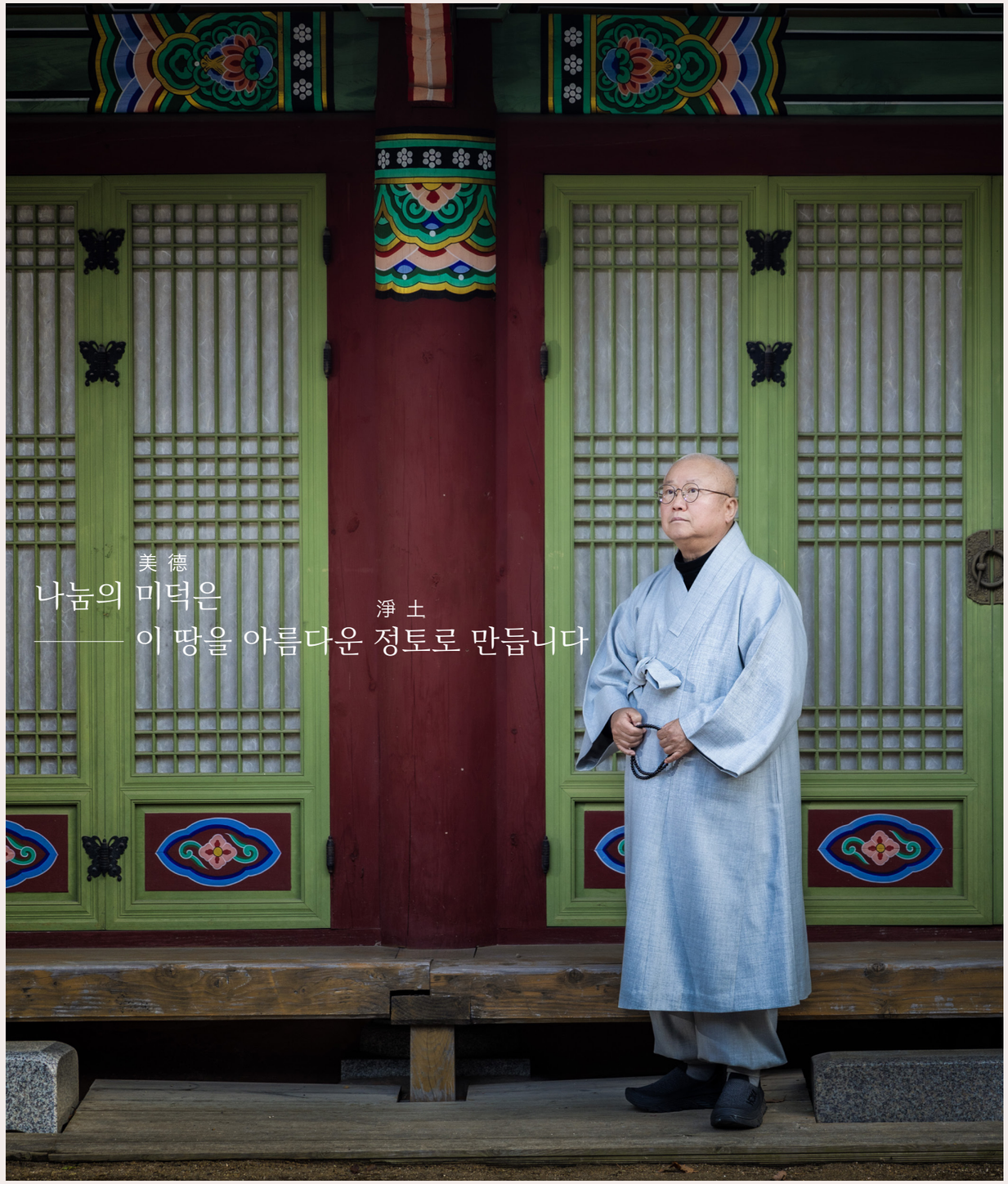
이영애 법무법인 산지 고문변호사



김영자 성심수녀회 수녀



정연두 미디어아티스트



美 德
나눔의 미덕은
淨 土
이 땅을 아름다운 정토로 만듭니다

16

# 법진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사단법인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선문화연구』발행인
한국선학회 고문
한국불교학회 이사
재단법인 선학원 17대, 18대, 19대 이사장

복(福)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덕(德)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과 타인을 배려하는 양보의 토양 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오로지 개인의 안위만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남을 외면하는 이러한 세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의 중심을 잡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양현재단의 하심(下心)은 척박한 대지를 적시는 감로수(甘露水)와도 같습니다.
나를 비워 타인을 채우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불교의 자비 정신에 기반한 보시(布施)라는 미덕이야말로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을 아름다운 정토(淨土)로 일구어가는 가장 거룩한 불사(佛事)라 할 것입니다.

**대(代)를 이어 흐르는 '나눔 정신'**

저는 주석처인 삼각산 정법사(正法寺)에서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장례 의식과 추모제를 주관하며 그분과 인연(因緣)을 맺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집전하며 마주한 조수호 회장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생전 거친 바다를 개척하며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닦으셨던 강인한 기업가였으나 성품만큼은 한없이 맑고 깊으셨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영 철학 기저에 흐르던 사회공헌의 뜻을 보며, 그분께서 평소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보살피고자 하셨는지 그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뜻은 조수호 회장님의 사후에도 당시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쏟은 지극한 정성 속에서 다시금 세상에 꽃을 피웠습니다.
최은영 회장님께서 고인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양현재단을
설립하던 그 첫 마음을 저는 곁에서 감명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
제2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 참석(2008)

"바다처럼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이 한 구절에는 조수호 회장님이 평생 품었던 나눔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살피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은 양현재단을 통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은영 회장님과
재단 식구들은 그 뜻을 다양한 나눔의 실천으로 꽃피워 왔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조수호 회장님의
부친이신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님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신 참된 불자이셨습니다. 조중훈 회장님께서는 각 종단과 사찰의 크고 작은 불사를
조건 없이 지원하셨을 뿐 아니라, 불교 포교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월간지 『불교사상』을
발간하는 등 한국 불교계에 남기신 족적이 실로 지대합니다. 선대회장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조수호 회장님을 거쳐 오늘날 양현재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학계의 단비, 양현재단의 '만해학술상' 후원**

불교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설립된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의 '만해학술상'을 양현재단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가문의 내력과 깊은 효심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일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재단이 흔들림 없이
이 학술의 장을 지켜온 것은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그 유지를 받드는 깊은 효심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소승이 이끌고 있는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은 1921년 선학원의 설립 정신과 1934년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의 맥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2005년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 교학부터 선학, 사학, 예술 등 폭넓은 연구를 통해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힘쓰며, 현대인들에게 내면의 좌표를 제시하는 수행의 공간이 되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신행(信行)과 교학(敎學)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자들이 연구에만 매진하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합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싶어도 뒷받침해 줄 토양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반의 가뭄 속에서 양현재단이 건네준 손길은 우리 학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학술회의와
'만해학술상'을 통한 우수 논문 발굴은 연구자들이 지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정성은 등재학술지인 『선문화연구』(禪文化硏究)와 수많은
학술총서라는 귀한 결실로 맺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이 지원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자비이자 우리 시대의 인문학이 다시금 푸른 싹을 틔울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마중물이라 할 것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81주기 추모예술제(2025.6.)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오래도록 빛나기를**

대승불교의 실천 이념은 위로는 참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고통받는 모든 이웃과 함께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에 있습니다. 양현재단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며 베풂을 실천하는
행보는 그 자체로 현대적 의미의 보살행(菩薩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움과 수행, 그리고
그 결실인 나눔은 부단한 노력과 정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화엄경』(華嚴經)에서 이르기를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면 반드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양현재단이 조수호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첫 삽을 뜨던 그 맑고 정직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거대한 반야(般若)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강물이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가졌으나 결국 바다에 이르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듯, 바다와 같은 어진 마음(洋賢)으로 우리 사회의 아픈 곳과 슬픈 곳을 넉넉히
품어 안는 양현재단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洋賢




17

# 이영애

법무법인 산지 고문변호사

前 국회의원
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리천장을 깨고 후배들을 위한 길을 내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시험 수석 합격, 여성 최초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여성 최초 법원장. 누군가에게는 평생 하나도 이루기 힘든 수식어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록이 한 사람의 이력이라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법조계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이영애 변호사다.

이영애 변호사는 1948년, 서울대 법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던 아버지와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 양성기관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으로 해방 전후 의사로 활약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엄격한 가풍 속에서 그는 '옳고 그름'에 관한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성장했다.

"제가 자라던 시절은 지금과는 사회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입시를 위한 실용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도덕적 가치를 배우는 것이 훨씬 중시됐습니다. 나라는 작고 가난했어도, 가족 간의 유대만큼은 끈끈하던 시절이었지요. 저도 집안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아무래도 법조인이 많았던 집안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로 임관한 그는 1973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본격적인 법조인의 삶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 판사는 흔치 않았고, 법원 안에서는 여성 배석판사를 꺼린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몸담은 재판부의 분위기는 달랐다. 함께 일한 상사들은 성별에 개의치 않고, 그를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한 사람의 판사로 존중했다. 이러한 신뢰 속에서 그는 판사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다.

1970~80년대 판사들의 업무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때로는 휴일에 출근하고, 사건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 밤늦도록 검토해야 할 때도 있었다. 당시 그를 비롯한 동료 판사들이 방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사법부의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하나씩 깨뜨리며 고등법원 부장판사(1995년)와 법원장(2004년)에 발탁되었고, 후배 여성 법조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묵묵히 닦아나갔다.

**법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 생명 존중**

법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민간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침 우리 사회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생명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는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귀하다'는 가치를 사회에 전하고자 했다. 200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법조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생명 존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2008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생명포럼'을 설립해 관련 정책 마련에도 힘썼다.



데이비드 알톤 경(Lord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 초청 간담회(2023)

국회를 떠난 뒤에도 그의 실천은 멈추지 않았다. 법률가들이 주축이 된 생명윤리 연구모임인 '루멘비테(Lumen Vitae)'를 조직한 것이다. 루멘비테는 라틴어로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 이름에 담긴 뜻처럼, 그는 임산부가 낙태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의료·심리상담제도와 익명출산제도 등 다양한 입법적 대안을 연구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아울러 생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1~3회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영국 상원의원이자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확산에 헌신해 온 데이비드 알톤 경(Lord David Alton)을 초청해 안락사와 낙태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바탕에는 생명의 존엄을 사회 전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확고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법과 제도가 인간의 존엄을 토대로 이뤄져야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굳건한 신념이다. 생명윤리를 향한 이러한 진정성 있는 실천은 많은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양현재단 이사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양현재단의 활동을 접하게 된 이영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양현재단과 같은 민간 나눔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행정적 절차나 자원의 한계로 인해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일에 민간 공동체의 나눔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현재단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자원하여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나눔공동체야말로 여유 있는 계층과 소외 계층이 서로의 손을 맞잡게 하는 가교이며,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보호막입니다. 특히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중한 꿈을 포기해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앞으로도 양현재단의 활발한 행보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군나르 두트게(Gunnar Duttge)
독일 괴팅겐 법과대학 교수
초청 강연(2024)

이영애 변호사가 걸어온 길은 차가운 법의 논리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생명'과 '가치'를 향해 있었다. 법조인으로서 쌓아 올린 명예로운 기록보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생명을 보듬는 실천에 더 무게를 두었기에, 그 묵묵한 발자취는 이제 법의 진정한 목적을 고민하는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18

# 김영자

성심수녀회 수녀

前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사(화학, 종교, 상담)
前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늦가을 주말 오후의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정은 적막하다. 교정 제일 안쪽 성당으로 향하는 야트막한 언덕길을 천천히 오르며 운동장 너머의 교사(校舍)를 가만히 바라본다. 서른 살 무렵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며 30여 년을 함께 나이 먹었고, 은퇴 후에는 수도자로서 다시 20여 년을 이곳에서 지냈다. 내 삶의 대부분이 이 자리와 포개져 있어,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그 세월의 기억이 묻어있다.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던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방금 교문 앞에서 헤어진 예닐곱 제자들의 얼굴들도 그 속에서 웃고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의 생일을 기억해 함께 밥 먹자고 찾아온 고마운 제자들이다. "선생님의 생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이제는 중년을 넘긴 제자의 얼굴에서 언뜻 소녀의 수줍음이 스친다.
언덕 끝, 붉은색과 회색 벽돌로 지어진 예수성심성당을 배경으로 세상의 어린 양들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은다. 수도자로서, 또 교사로서 내 삶 속에 수많은 딸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가슴에 품은 씨앗 하나, 평생의 소명으로 피어나다**

내가 아직 개신교 신자였던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것이다. 여름성경학교 이야기대회에 나가 『슈바이처의 생애』라는 책을 상으로 받았다. 책을 좋아했던 나는 단숨에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언젠가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가 되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베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때때로 의문이 들었다. 슈바이처는 자기 나라에서도 의사로서 충분히 인술을 베풀며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아프리카까지 가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고생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며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철이 들면서 그 답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의 삶을 따르려는 그의 철저한 신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깨달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비로소 깊이 느끼게 해준, 내 삶에서 매우 소중한 체험이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느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일상생활에서 크게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책이나 가끔 전해 듣는 이야기 속에서만 세상의 불행을 접했을 뿐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보거나 느낄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존재를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은 점점 커져 내가 가진 모든 것, 무엇보다도 나의 삶 자체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사는 길로 내가 찾은 것이 바로 수도자의 삶이었다. 다만 내 가족은 신자가 아니었고, 특히 아버지는 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에 수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국 하느님의 이끄심 속에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었고, 마침내 수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감동과 신념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처럼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씨앗을 품고 살아온 세월 끝에, 지금 나는 수녀로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리라. 물론 나는 의사가 아니라 수녀이자 교사로서 직분을 맡아 한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점에서는 '정신적인 의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교사가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봉사가 삶이 된 제자를 지켜보는 기쁨**

수녀이자 교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내게
사람들이 가끔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고 묻는다. 그럴 때면 나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성심여자고등학교 전경

대답한다. 방학 중에 만난 학생들이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라고.

요한복음 17장 21~2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할 때 세상 또한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뜻을 전해준다. 나아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도 일깨워 준다. 우리는 삶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느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평생을 수도자이자 교사로서 학교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알리고자 살아온 내게, 어린 제자들에게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었다.

그렇게 내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 준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종종 나를 찾아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결같이 만남을 이어 온 제자 중 한 사람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양현재단 이사장)이다. 교직 30년을 돌아보면, 그는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다. 문과 학생이었지만 내가 지도한 화학 수업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했다. 나는 지식만이 아니라, 배움이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건넸는데, 그는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는 학생 중 하나였다. 그런 성실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졸업 후에도 스승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 왔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사제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일은 대부분 제자의 마음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과의 결혼식에도 나를 초대해 주었고, 조수호 회장이 선종한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양현재단의 달력과 함께 새해 인사를 잊지 않았고, 때때로 성심수녀회 수녀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가족과 함께 정겨운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국내 최초 국제미술상인 양현미술상 시상식과 세계적인 인사들의 강연에도 나를 초대해 나이 들어가는 스승이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김영자 수녀, 양현재단 '송길영' 작가 강연 참석(2025)

성심여고 2학년 장미반 학생이었던 최은영이 세월이 지나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되고, 또 어려운 이웃 곁에 서는 공익재단의 리더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문득 어릴 적 나를 떠올리게 된다. 그 시절 내가 붙들었던 '사랑과 봉사'라는 삶의 방향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든다.

스승의 기쁨은 제자의 화려한 성공에 있지 않다. 제자가 어떤 가치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마주하는 순간에 있다. 최은영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교실에서 나누었던 말들이 바람처럼 흩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느낀다. 그것이 누군가의 선택이 되고 태도가 되어, 세월을 건너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오늘 생일을 맞아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찾아와 준 제자들을 보며 나는 새삼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했다. 우리는 한때 교실에서 만났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심여고라는 이름 아래 같은 가치를 배우고 나눈 공동체였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지만, 그 뿌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가르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와 위로를 안겨 준다.

**푸른빛 영성 아래 드리는 감사의 기도**

다시 걸음을 옮겨 예수성심성당 건물을 왼편에 두고 성당 출입문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는다. 오른편에는 수녀회 사무실과 역사 전시실로 사용되는 성심기념관의 붉은색 벽돌 건물이 오후 햇살 속에서 차분히 자리를 지키며 언덕 아래 교정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곳은 1911년에 완공되어 1942년까지 예수성심신학교 교사로 사용되었던 유서 깊은 공간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만나러 학교 건물로 출근하곤 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겨울이면 난방에 넉넉하지 않아 추위에 몸을 웅크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과 마주하는 기쁨 앞에서는 그런 불편함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힘겨움보다 보람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

기념관 건물을 지나 성당 안으로 들어선다. 푸른빛이 도는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해 들어온 오후 햇살이 성당 내부를 잔잔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성당의 측면 스테인드글라스는 프랑스 수도회 떼제(Taize) 공동체의 마르크 수사가 작업한 것으로, 그는 15세기 무렵 유럽에서 그려진 성모의 푸른 망토에서 영감을 받아 성모성심의 영성이 감싸는 푸른빛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성당 유리창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이 시간, 나는 늘 그렇듯 뒤편 신자석에 가만히 앉는다.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순결한 마음을 푸른빛의 영성으로 느끼며 두 손을 모아 내 이웃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기리며 본받고자 세워진 이곳,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얼이 서린 이곳, 예수성심성당에서 당신께 기도 드립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소서. 아멘." 洋



김영자 성심수녀회 수녀




19

# 정연두

미디어아티스트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아트앤옥션 가장 소장가치가 있는 50인의 작가(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젊은예술가상(미술부문,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사진-영상부문, 2006년)
상하이 비엔날레 청년예술가상(아시아 유럽 파운데이션, 2002년)

**불가피한 상황과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도 꿈은 계속된다**

도쿄의 한 교실에서 만난 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 언젠가 산꼭대기에 올라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고 싶다고 했다. 이스탄불의 어느 거리에서 홍차를 서빙하는 청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을 꿈꿨다. 서울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고생은 개썰매를 끌고 북극의 설원을 누비고 싶어 했고, 대만의 트럭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빙랑'을 파는 여성은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또래 노인들과 악단을 꾸려 숟가락을 타악기 삼아 연주하는 팔순의 노인은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암스테르담의 영사실에서 일하는 청년은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를 바랐다. 이들은 정연두 작가가 2001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내 사랑 지니>의 주인공들이다. 그는 전 세계 인물들의 초상을 통해 사진의 한계를 넘어, 인물 내면의 풍경인 '꿈'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꿈을 물었다. 생면부지의 아시안 사내가 불쑥 다가와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 일은 일상에서 좀처럼 겪기 어려운 순간이다. 질문을 받은 이들은 대개 잠시 말을 멈추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술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더해지면 분위기는 금세 달라졌다. 그제야 질문은 어색한 침묵을 넘어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예술이란 만국 공통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너그럽게 만드는 '프리패스'가 아닐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꿈을 꺼낼 때마다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연두 미디어아티스트

비록 처한 상황은 불가피할지언정, 피치 못할 꿈은 없기에 그의 작업은 계속됐다. 모델과 합의가 되면 현재의 모습을 찍고, 이어 꿈이 실현된 상태로 분장한 모습을 다시 촬영했다. 이렇게 완성된 '현재의 모습'과 '꿈을 이룬 모습' 두 장의 사진은 나란히 전시됐다. 모델이 된 이들은 자신의 꿈이 당장 현실이 되는 게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꿈을 누군가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꺼이 작가의 여정에 동참했다. 정연두 작가 역시 사진이라는 결과물보다 꿈을 매개로 타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이 '함께하는 과정'에 예술의 본질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소통'을 통해 예술과 삶,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고 타인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의 영역을 확장했다.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시각화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삶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고, 관객들에게는 나란히 놓인 사진 사이의 간극에서 자신의 삶을 대입해보는 경험을 제공했다.

**녹록지 않은 여정 끝에 마주한 기적 같은 순간**

험난한 길이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진다고 했던가. <내 사랑 지니>의 여정은 녹록지 않았다. 산꼭대기에서 아침 해를 보고 싶다던 학생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3,193m 높이의 기타다케산 정상을 아홉 시간 동안 올랐던 고통은, 돌이켜보면 오히려 즐거운 축에 속했다. 2003년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청년의 꿈은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는 영화 <탑건>의 톰 크루즈처럼 실제 F-15 전투기 앞에서 당대 네덜란드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정연두 작가는 청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보름 가까이 실제 F-15 전투기와 여배우를 섭외하느라 동분서주했다. 겨우 준비를 마치고 청년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허망했다. 그는 그저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을 뿐이라며 촬영을 주저했다. 여러 사람의 수고가 허사가 될 판이었다. 정연두 작가는 감정을 누르고 다시 물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전투기나 여배우가 아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꿈이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제야 청년은 "극장 매표소 아가씨와 데이트하는 게 소원"이라고 털어놓았고, 결국 정연두 작가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 청년은 진짜 소원대로 매표소 아가씨와 함께 F-15 전투기 앞에 섰고, 작업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당시 겪은 스트레스가 어찌나 극심했던지 정연두 작가는 작업 후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꼭 고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암스테르담에서 작업을 마친 뒤 얼마 후, 정연두 작가는 2003년 이스탄불 비엔날레에 초청받아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이스탄불에서 만난 청년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노점에서 홍차를 나르고 있었다. 청년의 꿈은 수학 선생이었다. 정연두 작가는 청년의 현재 모습과 교실에서 수학 선생으로 분장한 모습을 각각 촬영해 전시했다. 이 프로젝트를 후원했던 터키의 한 은행이 청년의 사연을 접했고, 뜻밖에 제안을 내놓았다. 청년이 꿈을 이룰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홍차를 나르던 그 청년이 마침내 수학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미술이 마술이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내 사랑 지니> 프로젝트가 작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건넨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이처럼 정연두 작가는 <내 사랑 지니> 프로젝트를 통해 타인과 만나는 긴장감 속에서 세상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러한 시선은 이후 <보라매 댄스홀>, <원더랜드>, <로케이션> 등으로 이어졌다. 그는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확장된 시선으로 다가갔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웃과 더불어,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한 해에만 14~15회의 전시를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그는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당시 그의 선정은 미술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회자됐다. 그동안 '올해의 작가'는 주로 중견 혹은 원로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내보다 국외 전시가 더 많고, 세계적인 아트페어에서 주목받던 젊은 작가가 선정된 것은 변화하는 현대 미술의 최첨단에 선 그의 행보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세간의 관심보다 더 깊이 그의 작품 세계를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바로 당시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었다. 평범한 인물들과 교류를 통해 전달되는 정연두 작가의 휴머니즘은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라는 양현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닿아 있었다. 그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무렵, 최은영 회장은 예고 없이 그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작업준비로 어수선한 현장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작품과 작업 세계에 관해 한참 동안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최은영 회장은 양현미술상을 운영하며 인연을 맺은 해외 유력 미술관장과의 사적인 자리나 식사 모임에 정연두 작가를 종종 초대하곤 했다. 그런 자리에서 최은영 회장의 주된 관심사는 정연두 작가가 구상 중인 새로운 작업에 머물렀다.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작업에 필요한 것이나 자신이 힘을 보탤 일은 없는지 늘 세심하게 살폈다.
한번은 정연두 작가를 부산항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의 초대형 선박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자유롭게 배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적 자극이나 영감을 얻기를 바라는 최은영 회장의 세심한 배려였다. 그날 정연두 작가는 '해도 됨' 이라는 승인도장이 앞뒤로 프린트된 익살스러운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입고 나타났다. 최은영 회장과 선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 그는 거대한 선박 구석구석을 누비며 원 없이 셔터를 눌렀다.

그렇게 맺은 인연이 어느새 20년에 가까워지던 2024년 12월 어느 겨울 저녁,
정연두 작가는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무대 한쪽에 서 있었다.
마주 보고 있는 두 대의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이윽고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자리를 잡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디아스포라 연주회' 막이 올랐다. 이번 무대는 2025년 봄,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선보일 3채널 영상 및 설치 작품 <싱코페이션(Syncopation) #5>의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싱코페이션> 프로젝트는 자연의 불규칙하고 형언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룬 작업이다. 지난 2024년 5월 강릉에서 마주한 영동지방의 산불, 강릉 단오제의 기도, 신주와 무악의 장면들이 피아노 연주와 교차하며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될 예정이었다. 세 차례 반복되는 연주 속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진행된 촬영은 정연두 작가와 임지선 작곡가가 8개월간 협업하며 기획한 결과물이었다. 이는 묵음(默音)조차 소리의 일부가 되는 찰나를 포착해내는 정교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래 피아노는 펠트 해머가 현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다. 이때 해머가 현을 두드리는 방식은 음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조율사가 해머를 핀으로 찔러 강도를 조절하는 이 과정을 '보이싱'(Voicing)이라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무대 위 두 대의 피아노 가운데 오직 한 대에서만 선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한 대는 현을 모두 제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역사의 주요 흐름만을 선명한 이야기로 듣곤 한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들의 삶은 고요 속에 묻히기 마련이다. 정연두 작가가 한쪽 피아노의 현을 과감히 제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없는 건반이 만들어내는 심장 박동 같은 둔탁한 타격음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낮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랐던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소리를 위한 무명(無名)의 헌사**

한쪽 피아노의 현을 제거하려던 구상은 구체화 단계에서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현을 제거하는 작업은 피아노의 내부를 전부 들어내고 다시 맞추는, 사람으로 치면 내장을 모두 들어냈다가 다시 제자리에 넣는 대수술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조율사가 몇 주간 매달려야 할 만큼 정교하고 고된 공정이었다. 작업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개인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기에 정연두 작가는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머릿속으로만 현 없는 건반을 두드리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정연두 미디어아티스트

그러던 중에 최은영 회장과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다. 늘 그렇듯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신작 이야기로 흘러갔다. 소리를 근사하게 내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없애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작가의 고민을 들은 최은영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소리를 비워낸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 이심전심의 미소였다.

최은영 회장은 이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도록 기꺼이 사비를 들여 작업 비용을 마련해주었다. 예술가의 고뇌를 온전히 이해하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지지자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절대로 밝히지 말라는 당부뿐이었다. 촬영 당일, 정성껏 마련해 둔 최은영 회장의 좌석은 끝내 비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회의가 생겨 참석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을 뿐이다.
'무명(無名)'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마쳤지만, 정연두 작가는 고마운 마음을 전할 길 없는 현실이 못내 속상했다. 과거 양현미술상이 그러했듯 아낌없이 내어주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은영 회장의 방식이자 철학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깊은 뜻을 알기에 더는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다. 그는 관객들 앞에서 작품 설명을 겸해 조심스럽게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다.

"드러나지 않는 소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후원 덕분에 <싱코페이션>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불규칙하고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 속에서 쌀 한 톨을 수확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손, 소리 없는 피아노를 두드리는 손을 추적하며 우리의 역사와 기억,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어루만지고 이해하는 과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객을 향해 인사를 마친 정연두 작가는 최은영 회장을 위해 비워둔 좌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텅 빈 자리였지만, 그곳엔 늘 묵묵히 박수를 보내주던 한 사람의 온기가 머물러 있는 듯했다. 당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후원자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의를 홀로 간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가로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보답이겠지만, 그 고귀한 지지를 잊지 않고 전하는 일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도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 망설임 끝에 그 이름을 조심히 꺼내 놓았다. 비록 이 고백이 결례가 될지라도,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예술가의 세계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온전히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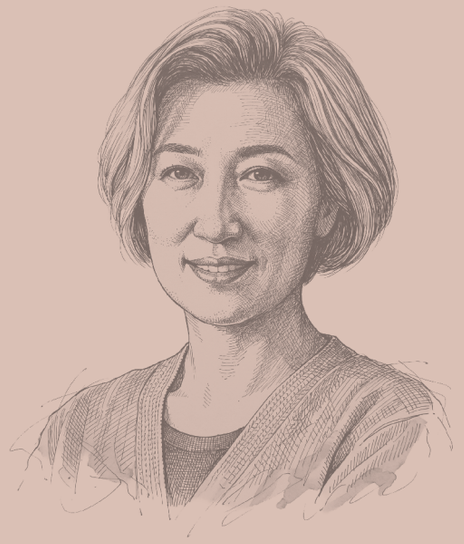


Chapter 5 **初心 초심**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고,
나눔의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약속.
그 첫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 ‘양현답게’ 그 길을 묵묵히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前 한진해운 회장
前 양현재단 이사장(2006.12.18.~2018.09.07.)

**스무 해 전, 그의 당부를 기억합니다**

2006년 11월을 기억합니다. 바다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그리고 미술에 대한 동경을 가슴 한편에 품고 살았던 사람. 우리가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을, 우리는 못내 애통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소중히 여긴 가치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사재를 출연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며,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오랜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명칭은 그의 호(號)인 양현(洋賢)을 그대로 가져와 ‘양현재단’이라 지었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은 깊었지만, 그의 뜻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양현재단은 조수호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해운·물류·해양 연구지원을 근간으로, 장학·의료·문화예술·사회복지에 이르는 다각적인 공익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분명한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곳보다, 세상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을 찾아 나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단발성 선행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동행으로 이어지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후원회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해운·물류·해양 연구지원 —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양현재단이 지향해 온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업이 바로 해운·물류·해양 분야의 연구지원입니다. 해운·물류·해양 연구는 그 성격상 먼 미래를 내다보며 토대를 닦는 장기적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성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조수호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해상운송은 당장의 개인적 이익이 없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국가 기간(基幹)산업입니다."

조수호 회장은 재단 설립 이전부터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총재를 역임하는 등 해운 분야의 관심 제고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양현재단은 이러한 실천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과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는 조수호 회장이 몸소 보여준 실천의 방식이었기에, 재단 또한 지난 20년 동안 기초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학지원 — 우리 사회에 미래를 밝히는 일**

해운·물류·해양 연구지원에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인재 양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서 비롯된다는 믿음 아래, 재단은 장학사업을 두 갈래로 전개해 왔습니다. 하나는 해운·물류·해양 산업의 내일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선원 자녀와 해양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주요 해양계 대학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교육 기반을 함께 다져왔습니다. 교육과 실습 환경의 내실이 곧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지원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학업을 돕는 차원을 넘어, 해운·물류·해양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질병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조수호 회장은 생전 어린이를 우리 사회의 가장 순수한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병마와 싸워야 하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내일을 꿈꾸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아이들의 꿈을 뒷받침하는 장학사업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의료지원 — 환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그 결실로 재단은 아산병원 난치성질환 분야 의료진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며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힘쓰는 한편, 연수를 마친 이들이 습득한 지식을 지방병원 의료진에게 전수하는 '프리셉터십'을 후원함으로써 지식의 선순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환아를 위한 미술치료 교실, '희망의 벽' 프로젝트,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을 위한 앱 개발 등 다각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지원 항목의 방대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결같이 흐르는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정서적 치유와 안정 속에서 다시 삶의 용기와 희망을 품게 하겠다는 뜻. 양현재단의 의료지원은 치료의 보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그 가족이 버텨내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바탕에는 아이들에게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원 —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이**

사회복지사업에서도 재단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일'인가, 진정 '필요한 일'인가. 우리는 관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대상과 지역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지속성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나, 시대적 요청이나 지원의 절실함이 긴박한 경우에는 일회성에 그치더라도 필요한 결정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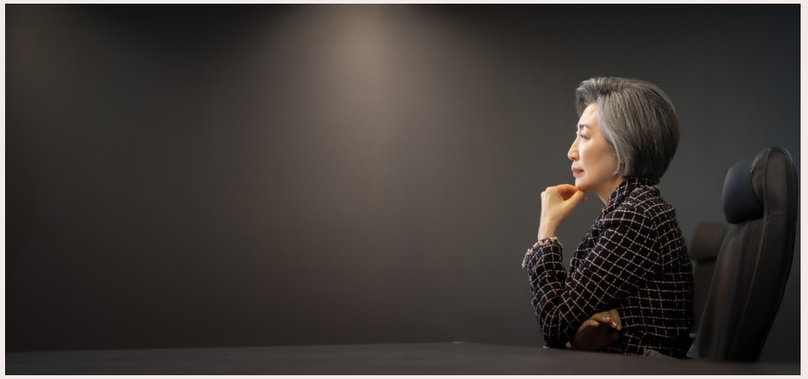
이러한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 회원들의 헌신과 만나 비로소 온전한 빛을 발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과 김장을 나누며, 어린이 병동을 찾아 환아와 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매번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나눔은 받는 이만이 아니라 주는 이의
삶도 함께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이처럼 양현재단의 20년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숨 쉬며
걸어온, 사랑과 연대의 기록입니다.

**문화예술지원 —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조수호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그림을 즐겨 그릴 만큼
미술을 사랑했습니다. 예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기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재단의 문화예술사업을
대표하는 '양현미술상'은 바로 이러한 고인의 바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양현미술상은 처음부터 세계 미술의 지형을 넓히겠다는 확고한 철학 위에 섰습니다.
북미·서유럽 중심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예술적 가능성에 고르게 주목했습니다. 화려한 시상식의 이벤트보다,
수상 당일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세계를 강연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이 세계적 작가의
예술을 온전히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데 더 깊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작가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당대 최고 수준의 상금과 함께 수상 후
3년 이내에 전 세계 유명 미술관 어디서든 원하는 시기에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했습니다. 국적과 장르를 불문하고 예술적 잠재력과 왕성한 작품활동을
보여주는 세계적 중견작가를 대상으로,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큐레이터 추천위원단과
세계 유수 미술관 디렉터급 심사위원단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공정한 심사와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양현미술상은 국제적 권위를 지닌
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이들이 예술이 지닌 사회적 순기능을
향유하길 바랐던 고인의 뜻이, 세월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된 것입니다.

**다시 걸어갈 스무 해를 그려봅니다**

양현재단이 나아가야 할 다음 20년의 해답은,
이미 지나온 발자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적시듯,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 온기를 전하는 일.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그저 그 곁을 묵묵히
지켜내는 일. 그것은 양현의 신념이자 태도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양현다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만난 수많은 이웃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민 작은 마음은 더 큰 보람과 사랑으로 되돌아왔고,
결국 나눔이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아름다운 순환임을 몸소
배웠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스무 해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러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될 스무 해의 여정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현답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섣부른 변화나 낯선 새로움을 좇기보다, 초심을 되새기며 본래의 가치를 실천해 나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서두르거나 과장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洋) 어진(賢)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조수호 회장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깁니다. 지나온 시간이 그러했듯, 설령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고 양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피어난 희망의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더 넓고 깊게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洋賢



# 스무 해의 시간은
#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일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켜켜이 쌓아온 스무 해의 발자취를,
한 페이지씩 펼쳐봅니다.

2006

2026

한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작은 발걸음은
수많은 만남과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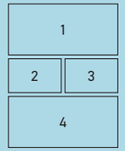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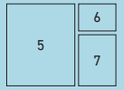











1 — **2007. 03. 27. 양현재단 '후원회' 결성**
다양한 분야 인사 18인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봉사활동·활동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 역할 수행

2 — **2007. 10. 12. '부산대학교 물류혁신네트워킹 연구소' 설립지원금 전달**
2007년부터 해운·물류·해양 연구지원 사업 지원

3 — **2008. 03. 28. 선박금융 'Sustainable Growth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딜로이트 컨설팅과 '해운금융 발전 및 해운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금융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 계약 체결

4 — **2008. 10. 10. '제1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퍼블릭랙처' 개최**
국내 최초 국제미술상인 '양현미술상' 제정, 첫 수상자 카메론 제이미(Cameron Jamie) 선정

5 — **2009. 01. 2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운영지원금 후원**
2009년부터 청소년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후원금 전달

6 — **2009. 07. 16. 서울아산병원·엔씨소프트와 '기능성 게임 개발 MOU' 체결**
인지장애 아동 인지력 개선 게임 '인지니' 개발 및 출시 지원

7 — **2009. 09. 05. 서울아산병원 '양현 미술치료 교실' 후원**
2009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인하대병원·은평천사원 소아암 환아·발달장애 아동의 재활 및 치유를 위한 미술치료 지원














8 11 12 13 9 10

8 —— **2010. 02. 26. 충남대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협업)**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명지병원(2010년), 제주한라병원(2011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2016년) 등 총 4개 작품 설치

9 —— **2010. 05. 12.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꿈과 희망의 나라로' 행사 후원**
2007년부터 어린이병동 외 위문행사 후원

10 —— **2010. 11. 20. 양천구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11 —— **2010. 11. 24. 사단법인 연우 '이동한방진료버스' 기증**
취약계층 노인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반갑다 연우야' 의료봉사단 이동 한방진료 차량 지원

12 —— **2011. 06. 29.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2007년부터 독거 노인·노숙자 대상 무료 급식 봉사 및 후원금 전달

13 —— **2011. 08. 17. 아동복지시설 '성로원 아기집·꿈나무마을' 초청 '가루야 가루야' 문화체험 후원**



















14 15 16 17 19 18

14 — **2012. 04. 19.** **STC-K(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증서 전달**
2008년부터 해운·물류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후원

15 — **2012. 06. 05.** **서울아산병원·엔씨소프트와 함께 '소아암 환아를 위한 무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소아암알기: 아루미와 함께하는 소아암알기', '소아암수첩' 개발 및 출시

16 — **2012. 08. 13.** **국제백신연구소(IVI) '인플루엔자 통합 상황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금 전달**
2008년부터 국제백신연구소의 기빙파트너로서 백신 개발·보급 후원

17 — **2013. 08. 07.**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 초청 '종이발자국' 문화체험활동 후원**

18 — **2014. 08. 01.**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초청 전통공예체험 후원**

19 — **2014. 09. 03.** **국제백신연구소(IVI) '키키(KiKi) 프로그램' 후원**
Kids Help Kids의 약자로, 어린이 대상 공중보건 및 나눔교육 프로그램















20
23
24
21
22

20 — **2015. 05. 23. 아동복지시설 '동명아동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사랑 키우고 나눔 전하는 양현 Day' 행사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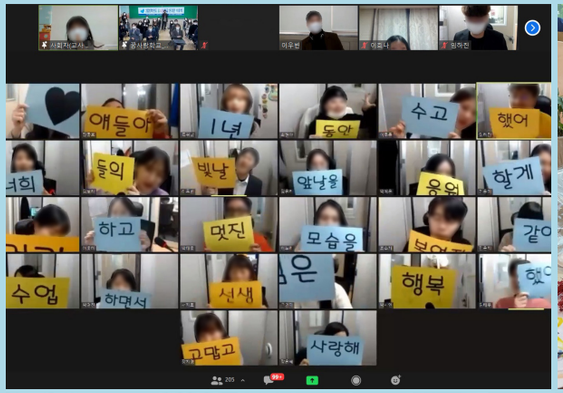
21 — **2016. 01. 15.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
2009년부터 순직·장해·장기 승선 선원 자녀(중·고생)를 위한 장학금 지원

22 — **2016. 11. 12. 태초먹거리 학교(충남대 이계호 교수)' 100회 강연 후원**
2014년부터 암 환우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교육을 위한 강연 후원

23 — **2017. 05. 20. 아동복지시설 '신망원' 초청 '모래알은 반짝' 문화체험행사 후원**

24 — **2018. 03. 19. 도서벽지 어린이신문 보내기 후원**




















25 — **2018. 08. 03.** **굿네이버스 서울 동작지부 희망나눔학교 '잡월드' 체험 및 심리치료 후원**

26 — **2019. 12. 05.** **제10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전문가 프리셉터십 실시**
2010년부터 난치성질환 전문인력 후원

27 — **2020. 11. 25.**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제14회 문예창작대회 후원**
2007년부터 건강장애학생 온라인 대안학교 '꿈사랑 사이버학교' 지원

28 — **2021. 06. 23.** **굿네이버스 연계 저소득층 아동 후원**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지역 저소득층 아동 80명 대상으로
간편식·위생용품 키트 및 원예치료(힐링화분) 키트 후원

29 — **2021. 07. 21.** **서울아산병원 VR 교육 프로그램(출혈 응급상황) 개발 후원**
2021년부터 VR·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비 후원



타이키 삭피싯, <스피릿 레벨> 영상 스틸, 2023, 작가 제공

앤 덕희 조던, <안녕히, 그리고 물고기는 고마웠어요> 설치전경, 2023, 작가 제공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공



30 31 3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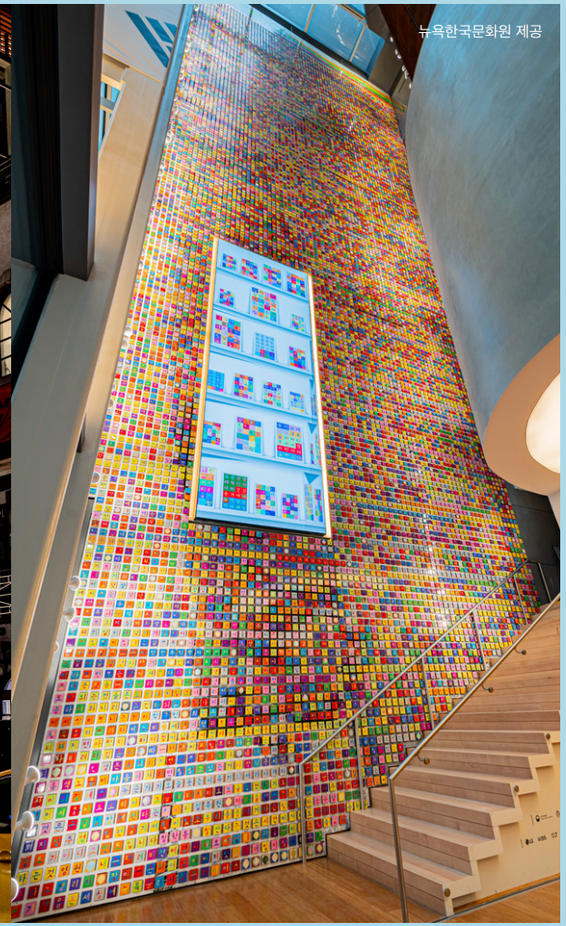
30 — **2022. 12. 30.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 제작 후원**
타이키 삭피싯(Taiki Sakpisit/ Thai)과
앤 덕희 조던(Anne Duk Hee Jordan/ German) 작가 작품 제작 후원

31 — **2023. 05. 23. 의료취약지역 환자(정읍아산병원) 가정간호사업 차량 지원**

32 — **2023. 10. 12. 종로아이존 발달장애·비장애어린이 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후원**
장애어린이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 도모를 위한 교육 후원

33 — **2023. 12. 01.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2008년부터 한국불교학 발전과 연구자 양성을 위한 불교 연구 논문 공모·시상금 후원























34
35
36
37
38
39

34 — **2024. 06. 05. 뉴욕한국문화원 강익중 작가 '한글벽' 작품 제작 후원**

35 — **2024. 10. 17. 양현재단 설립 18주년 기념 '야마구치 슈' 작가 공개강연 개최**
<The Importance of Critical and Aesthetic Mindset in Management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심미적 사고방식의 중요성)>

36 — **2025. 04. 04. 경남지역 산불피해복구 후원금 전달(대한적십자사)**

37 — **2025. 04. 30. 양현재단 후원회 어린이날 기념 승가원행복마을 선물 후원**

38 — **2025. 10. 21. 양현재단 설립 19주년 기념 '송길영' 작가 공개강연 개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

39 — **2026. 03. 10. 승가원행복마을 발달장애아동 이동차량구입 후원**

**목적사업 현황**

양현재단은 해운·물류·해양 연구를 비롯해 장학, 의료,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목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대체로 지속성을 바탕으로 계획·운영되고 있으나,
공익재단으로서 시대적 요청과 현장의 절실함에 따라 일회성 지원도 병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 해운·물류·해양 연구지원

- 해운·물류·해양 학술 연구용역 지원
- 해양관련 연구단체 지원
  - 부산대학교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소
  - 해양청소년단연맹
- 양현상 후원(해운물류연구 우수논문)

## 장학지원

- 장학금지원
  - 더불어하나회 부설 '꿈사랑학교' 건강장애학생 후원
  -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STC-K) 장학금 지원
  - 선원자녀 장학금 지원
- 해양계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지원
  - 한국해양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 공개강연 개최
  - 야마구치 슈 작가
  - 송길영 작가

## 의료지원

- 의료인 교육 지원
  -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후원
  - 교육 프로그램(VR, Metaverse) 후원
- 소아암 환아용 앱 개발
  - 소아암알기, 소아암수첩
- 국제백신연구소(IVI) 지원
- 희망의 벽 제작 후원
  - 충남대병원, 명지병원, 제주한라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미술치료교실 후원
  - 서울아산병원, 인하대병원, 은평천사원,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놀이치료교실
- 기타
  - 그린닥터스재단 '2009 아시아 평화 의료대장정' 후원
  - '반갑다 연우야' 이동한방진료버스 구입 지원
  - 정읍아산병원 가정간호차량 구입 지원
  -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아동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후원 등

## 문화예술지원

- 양현미술상 제정 및 시상
- 국립중앙박물관 후원
- 광주비엔날레 후원
- 뉴욕한국문화원 설치, 강익중 작가 한글벽 제작 후원

## 사회복지지원

- 후원회 활동
  - 다일공동체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 소아병동/ 양로원 위문 방문 및 공연 주최
  - 태초먹거리 강연 후원
  -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 및 전통공예체험 후원
  - 굿네이버스 저소득층 아동 후원
  - 어린이날 기념 장애아동(승가원행복마을) 선물 후원
- 기타
  - 은혜의 집 '사랑의 작은 도서관' 건립 후원
  - 은평천사원 '양현도담교실' 건립 후원
  - 양천구 지역주민을 위한 김장 나눔 등
  - 푸르메재단 푸르메스페이스 조성 후원
  - 승가원행복마을 장애인 이동차량 구입 후원

洋賢二十年 2006 2026

해운·물류·해양 연구지원 | 장학지원 | 의료지원 | 문화예술지원 | 사회복지지원

### 해운·물류 학술연구용역 지원
- 기간 2008년~현재
- 금액 1,388,250,069원
  연구 용역 과제 21건

### 양현상 후원(해운물류연구 우수논문)
- 기간 2024년~현재

### 해운·물류·해양 단체 지원
- 기간 2007년~2014년
- 금액 1,117,382,740원
  대상 5개 기관

### 해양계학교 대학생 장학금
- 기간 2008년~2017년
  대상 3개교, 21명

### 선원자녀 장학금
- 기간 2007년~2017년
- 금액 920,643,800원
  대상 108명

### 더불어하나회 부설 '꿈사랑학교' 후원
- 기간 2007년~2017년
- 금액 920,643,800원
  대상 전국 13개
  시.도 지역 건강장애학생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 기간 2008년~현재

### 공개강연 개최
- 2024년 야마구치 슈 작가
- 2025년 송길영 작가

###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후원
- 기간 2007년~현재
- 금액 1,377,717,832원
  대상 101명(총 107기)

###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VR, Metaverse) 후원
- 기간 2021년~현재
- 금액 450,000,000원

### 소아암 환아용 앱&게임 개발
- 기간 2008년~2014년
- 금액 304,552,426원

### 국제백신연구소(IVI) 지원
- 기간 2008년~2019년
- 금액 303,101,200원

### 희망의 벽 제작 후원
대상 4개 병원

### 미술치료, 놀이치료 교실 후원
- 기간 2009년~2017년
- 금액 232,688,405원
  대상 4개 기관

### 의료취약지역 진료차량 후원
- 2010년 반갑다 연우야
- 2023년 정읍아산병원

### 양현미술상 후원(상금 수여 및 전시 지원)
- 기간 2008년~2017년
- 금액 1,000,000,000원
  (각 100,000,000원)
  대상 10명(총 10회 운영)

### 광주비엔날레 작품 제작 후원
- 기간 2022년

### 뉴욕한국문화원
### 강익중 작가 '한글벽' 제작 후원
- 기간 2024년

### 무료급식 쌀 후원 및 배식봉사
- 기간 2007년~2022년
- 금액 97,199,000원
  운영 14회

### 어린이병동 위문 공연 및 선물 후원
- 기간 2007년~2014년
  운영 12회

###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활동 후원
- 기간 2010년~ 현재

### 아동복지 활동 프로그램 후원
- 기간 2017년~ 현재

### 태초먹거리 강연 후원
- 기간 2014년~2019년
  운영 10회





洋賢二十年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

# 재단법인 양현 20년

2006년 설립된 양현재단은 지난 20년간 해운물류 분야의 학술·연구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소아암 등 난치병 어린이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기업과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해운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 2006

11. 24. 姑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사재 출연 결정
12. 06. 창립 총회 및 임원 선출
12. 18. '재단법인 양현' 설립 해양수산부 허가
12. 20. '재단법인 양현' 법인 인가

## 2007

03. 27. 양현재단 후원회 결성
05. 02. 서울 아산병원 주최 '가정의 달 어린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공연' 후원
06. 27. 영등포 광야교회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125포 기부
07. 13.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08. 01. 서울아산병원 '암 전문 인재육성 프로그램' 후원금 전달
10. 12. 부산대학교 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원 설립 지원금 전달
12. 05. 인하대병원 주최 '소아환자들을 위한 희망나눔 행사' 후원

## 2008

03. 28. 선박금융 'Sustainable Growth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체결
04. 21.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125포 기부
05. 20.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금 후원
22.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주최 '가정의 달 환아들을 위한 행사' 후원
06. 04.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07. 21. STC-K(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금 전달
08. 06. 국제백신연구소(IVI) 후원금 전달
25. 서울아산병원 '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및 '소아암 환자용 게임개발' 후원금 전달
09. 23. 부산대학교 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소 연구기금 전달
30.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해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계약 체결(KMI)
10. 10. 제1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개최
11. 제1회 양현미술상 수상기념 '양현퍼블릭렉처' 개최
12. 05. 다일천사병원 운영비 '밥퍼나눔운동본부' 식기류 지원
17. 서울아산병원 주최 환아들을 위한 '사랑나누기, 희망나누기' 행사 후원

## 2009

01. 2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업 추진 기금 후원
03. 26. STC-K(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증서 전달식
04. 30.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05. 13.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환아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나라로' 행사 후원
06. 09.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금 후원
23. 그린닥터스재단 '2009 아시아 평화 의료대장정' 후원
07. 16. 기능성 게임 개발 MOU 체결(서울아산병원, 엔씨소프트)
21. 한국해양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08. 04. 인천 옹진군 병원선 의약품 후원
12. 국제백신연구소(IVI) 후원금 전달
18.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26. 부산대학교 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소 연구기금 전달
09. 05. 서울아산병원 '양현 미술치료 교실' 후원
10. 09. 제2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24. 인하대병원 '양현 미술치료 교실' 후원
11. 18. 혜명양로원 '행복가득 사랑나눔' 행사 개최
12. 22. 목포해양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 2010

01. 04. 한국해양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02. 26. 충남대병원 '희망의 벽' 후원 및 제막식 실시
03. 24. STC-K(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금 전달
04. 22.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05. 12.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꿈과 희망의 나라로' 행사 후원
06. 04. 국적선사의 친항만관리정책에 대한 영향과 대응 전략' 연구 계약 체결(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15.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금 후원
07. 06. 선,화주 상생협력 수익모델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연구 계약 체결(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선주협회)
28.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09. 17. 국제백신연구소(IVI) 후원금 전달
10. 08. 제3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10. 23. 혜명보육원 아동 초청 '수목원 나들이' 행사 실시
11. 05. 서울아산병원 '양현미술치료교실' 후원
15. 선박온실가스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 계약 체결(DNV)
인하대병원 '양현미술치료교실' 후원
11. 20. 양천구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23.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사랑마을이주민센터 '다문화 가정 눈썰매 캠프' 후원
11. 24. 사단법인 연우 '이동한방진료버스' 기증식
27. 아동복지시설 초청 '난타' 공연 관람 실시
12. 01.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2월 1일~3일, 서울아산병원)
07. 부산지역 아동보육시설 '은혜의 집' 도서관 건립 후원
15. 명지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 및 제막식 실시
2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환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 후원

## 2011

01. 2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운영지원금 후원
03. 16. STC-K(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금 전달
04. 19. 북극해 화물운송시장 진출방안 연구' 계약 체결(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05. 09. 아세안 단일해운시장 이행계획 수립 연구' 계약 체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4. 명진들꽃사랑마을 아동 초청 들꽃수목원 견학
16. 해기품질평가 IMO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계약 체결(한국해양수산연수원)
06. 29.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08. 17. 아동복지시설 초청 '가루야 가루야' 문화체험 후원
24.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31. 국제백신연구소(IVI) '인플루엔자 통합 상황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
10. 07. 제4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11. 04. 제주한라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 및 제막식 실시
30. 제2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1월 30일~12월 2일, 서울아산병원)
12. 15.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양현재단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행사 후원

## 2012

03. 05. 서울아산병원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후원금 전달
04. 04.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19. STC-K(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증서 전달
05. 19. 상록보육원 아동 초청 들꽃수목원 견학
06. 05. 소아암 환아를 위한 무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보고회(서울아산병원)
08. 07.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10. 아동복지시설 '경동원' 초청 '가루야 가루야' 문화체험
13. 국제백신연구소(IVI) '인플루엔자 통합 상황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금 전달
10. 12. 제5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11. 07. 제3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1월 7일~9일, 서울아산병원)
12. 18. 중앙대학교병원 환아를 위한 크리스마스 공연 후원 및 소아과병동 놀이방 책 기증

## 2013

01. 22.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04. 24.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05. 11. 아동복지시설 '에델마을' 아동 초청 요트 체험 후원
07. 31.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 사이버학교' 후원금 전달
08. 07.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 초청 '종이발자국' 문화체험활동 후원
09. 04. 국제백신연구소 '인플루엔자 통합 상황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금 전달
10. 11. 제6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11. 20. 제4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1월 20일~21일, 서울아산병원)
12. 1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환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 후원

## 2014

01. 20.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02. 10. 서울아산병원, 인하대병원, 은평천사원 양현미술치료교실 후원
03.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후원
04. 23.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25. 서울아산병원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후원
05. 31. 은평천사원과 양현재단이 함께 하는 '식, 도, 락 Day' 행사 후원
08. 01.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아동 초청 전통공예체험 후원
06. 서울아산병원 소아재활환자를 위한 '인지니 탑재 아이패드' 후원
사단법인 더불어 하나회 산하 '꿈사랑학교' 후원금 전달
30.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09. 03. 국제백신연구소(IVI) 어린이 대상 공중보건 및 나눔교육 '키키(KiKi) 프로그램' 후원

27.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학교' 강연 후원

11. 11. 제7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18. 국제백신연구소(IVI) '제3회 국제사진공모전&전시회' 후원

12. 10. 제5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2월 10일~11일, 서울아산병원)

16.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양현재단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행사 후원

## 2015

01. 20.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04. 11.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학교' 강연 후원

04. 15.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및 쌀 후원

05. 23. 아동복지시설 '동명아동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사랑 키우고 나눔 전하는 양현 Day' 행사 후원

07. 30. 아동복지시설 '영락보린원' 아동 초청 전통공예체험 행사 후원

08. 03. 명지병원 메르스 치료 의료진 감사품 전달

04. 국제백신연구소(IVI) 네팔 콜레라 백신 접종 후원

05. 보라매병원 메르스 치료 의료진 감사품 전달

08.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10. 28.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학교' 후원금 전달

11. 12. 제8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12. 09. 제6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2월 9일~10일, 서울아산병원)

## 2016

01. 15.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03. 12.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10. 20. 제9회 양현미술상 수상자 선정

11. 12.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100회 강연 후원

25.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

12. 22. 제7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2월 22일~23일, 서울아산병원)

23.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학교' 후원금 전달

## 2017

04. 25.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장학금 후원

05. 20. 아동복지시설 '신망원' 아동 초청 문화체험행사 후원

05. 29.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놀이치료 후원

08. 08.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결식아동 후원 및 급식봉사활동

09. 09.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10. 26. 제10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11. 30. 제8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1월 30일~ 12월 1일, 서울아산병원)

12. 08.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꿈키움 캠프'(저신장장애 환아 및 가족 참여) 후원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학교' 후원금 전달

## 2018

03. 19. 도서벽지 어린이신문 보내기 후원

은평천사원 미술치료 후원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놀이치료 후원

05. 28. 서울아산병원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후원

07. 24. 아동복지시설 '성모자애드림힐' 아동 초청 '모래알은 반짝' 문화체험 후원

08. 03. 굿네이버스 서울 동작지부 희망나눔학교 '잡월드' 체험 및 심리치료 후원

24. 국제백신연구소(IVI) '마다가스카르 주혈흡충증' 치료 사업 후원

10. 27.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12. 13. 제9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2월 13일~14일, 서울아산병원)

## 2019

03. 25. 도서벽지 어린이신문 보내기 후원

04. 25. 아산병원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후원

05. 25.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06. 25.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아동 심리치료 및 뮤지컬 관람 후원

28.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승인(기획재정부)

07. 08.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놀이치료 후원

08. 02. 아동복지시설 '좋은집' 아동 초청 전통공예체험 후원

07. 지온보육원 아동 초청 VR(가상현실) 체험 후원

23. 국제백신연구소(IVI) '마다가스카르 주혈흡충증' 치료 사업 후원

26. 성실공익법인 재지정 승인(국세청)

11. 09. 양현재단과 함께하는 '태초먹거리 학교' 강연 후원

12. 05. 제10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12월 5일~6일, 서울아산병원)

12. 16. 꿈사랑학교 '건강장애학생 문예창작대회' 후원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아동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후원

## 2020

06. 25.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배식용 쌀 구입 후원
10. 14.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금 후원
11. 25. 꿈사랑학교 '건강장애학생 문예창작대회' 후원
12. 01. 굿네이버스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Kit 및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 후원

## 2021

05. 20.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일일도시락 나눔' 후원
06. 23. 굿네이버스 연계 저소득층 아동 후원(급식 및 위생 Kit, 원예치료 Kit)
07. 01.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아동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후원
21. 서울아산병원 VR 교육 프로그램(출혈 응급상황) 개발 후원
08. 19. 청각장애아동 투명마스크 후원(사랑의 달팽이)
09. 0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통공예체험 Kit' 후원
10. 25. 해운물류연구(항만서비스 업종 업무 직무분석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후원
12. 10.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16. 해운물류연구(선박연료공급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후원
꿈사랑학교 '건강장애학생 문예창작대회' 후원
서울아산병원 VR 교육 프로그램(간호사정) 개발 후원

## 2022

03. 25. 독거노인 및 노숙인을 위한 '일일도시락 나눔' 후원
05. 25. 서울아산병원 의료인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후원
07. 08. 저소득층 결식아동 '간편식 및 놀이Kit' 후원
12. 23.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 제작 후원

## 2023

01. 09. 꿈사랑학교 '건강장애학생 문예창작대회' 후원
03. 09. 의료취약지역 의료인 비대면 교육장비(VR, 메타버스) 후원
04. 11. 해운물류연구(해운산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국 조세제도 사례조사 및 시사점 마련) 후원
05. 03. 승가원행복마을 어린이날 기념 과자선물세트 후원
23. 의료취약지역 환자 가정간호사업 차량 지원
10. 12. 발달장애·비장애어린이 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후원(종로아이존)
12. 01.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 2024

05. 02. 승가원행복마을 어린이날 기념 과자선물세트 후원
10. 해운물류연구(글로벌 컨테이너 공급망 위기 분석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 후원
해운물류연구(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화와 미래 발전방향_환경 규제를 중심으로) 후원
06. 05. 뉴욕한국문화원 설치 강익중 작가 '한글벽' 작품 제작 후원
09. 05. 밥집알로 자립준비청년 '추석명절 홈커밍데이' 후원
10. 17. '야마구치 슈' 공개강연 개최
11. 22. 발달장애어린이 집단치료프로그램 후원(종로아이존)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12. 07. 해운물류연구 우수논문 선정 '양현상' 시상 후원
10. 서울아산병원 VR 교육 프로그램(신입간호사) 개발 후원
30. 해운물류연구(항만 터미널 야드장치장을 위한 최적의 RTG 투입대수 결정 연구) 후원
해운물류연구(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화와 미래 발전방향_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후원

## 2025

04. 04. 경남지역 산불피해복구 후원(대한적십자사)
05. 02. 승가원행복마을 어린이날 기념 과자선물세트 후원
09. 25. 발달장애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후원(종로아이존)
10. 10. 장애인 외부 체험 활동 후원(승가원행복마을)
21. '송길영' 작가 공개강연 개최
11. 25.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후원
12. 16. 서울아산병원 VR 교육(ECMO) 프로그램 개발 후원
24. 해운물류연구 우수논문 선정 '양현상' 시상 후원
30. 해운물류연구(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 공급망 규제를 중심으로) 후원
해운물류연구(무인 이송 차량의 최적경로 탐색을 위한 라우팅 알고리즘 개발 연구) 후원

## 2026

03. 10. 푸르메재단 푸르메스페이스 조성 후원
승가원행복마을 발달장애아동 이동차량 구입 후원

# 임원 현황 2026.6.19.기준

## 現 임원

### ( 이사장 )



**박한일**

재임기간 2022.12.18.~

- 前 한국해양대학교 제 6,7대 총장
- 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초대 이사장

### ( 이사 )



**조유경**

재임기간 2018.9.7.~

- ㈜유수홀딩스 전략기획실 부사장
- 前 싸이버로지텍 경영지원 본부 전무



**김 면**

재임기간 2020.12.18.~

-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명예교수
- 前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장/디자인대학원장
- 前 다빈치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단장(BK+21)

### ( 감사 )



**이동열**

재임기간 2024.12.18.~

- 법무법인 로벡스 대표 변호사
- 前 제18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홍균**

재임기간 2026.6.11.~

- 前 외교부 제1차관
- 前 주독일대사
- 前 양현재단 이사(2020.12.18 ~ 2022.10.5)



**김창호**

재임기간 2022.12.18.~

- 법무법인(유) 세종 회계사
- 前 삼일회계법인



**이휘성**

재임기간 2022.12.18.~

- 혁신기업 쉘위 대표
- 前 한국IBM 대표이사

## 前 임원

### ( 이사장 )



**최은영**

재임기간 2006.12.18.~2018.09.07.

- ㈜유수홀딩스 회장
- 前 한진해운 회장



### 임경수

재임기간 2020.12.18. ~ 2022.12.17.

-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장
- 前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장, 정읍아산병원장
- 前 양현재단 이사(2006.12.18. ~ 2022.12.17.)



### 김영문

재임기간 2018.9.7. ~ 2020.12.17.

- ㈜금풍 대표이사
- 유성관광개발 대표이사
- 前 양현재단 이사(2010.3.31. ~ 2020.12.17.)

## ( 이 사 )



### 김찬길

재임기간 2006.12.18. ~ 2010.3.31.

- 前 한진해운 사장
- 제7회 바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여



### 윤형규

재임기간 2006.12.18. ~ 2009.4.8.

- 前 문화관광부 차관
- 前 주오사카총영사관 총영사



### 김은선

재임기간 2006.12.18. ~ 2020.12.17.

- ㈜보령홀딩스 회장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이주헌

재임기간 2009.4.8. ~ 2022.12.17.

- 前 서울미술관 관장
- 前 학고재 갤러리 관장



### 김종우

재임기간 2022.10.7. ~ 2026.6.11.

- LS일렉트릭 고문
- 前 LS일렉트릭 사장, COO



### 유현준

재임기간 2022.12.18. ~ 2024.12.17.

- 유현준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
- 홍익대학교 교수

## ( 감 사 )



### 서부택

재임기간 2006.12.18. ~ 2008.6.15.

- 前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창하

재임기간 2006.12.18. ~ 2022.12.17.

- 대주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



### 박형근

재임기간 2008.6.16. ~ 2015.6.30.

- 펀타스틱 씨어터 대표
- 前 SC 제일은행 부행장



### 이원우

재임기간 2015.7.1. ~ 2022.12.17.

- 독일 Eurogate Group 한국대표
- 前 한진해운 부사장

##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마음


프리즈하우스 제공


프리즈하우스 제공




1990년대 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았던 약수동 자택은
현재 '프리즈하우스'란 이름의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오붓한 일상을 나눴던 이 공간은,
오늘날 또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며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프리즈하우스 천장에는
조수호 회장이 직접 쓴 상량문(上樑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모든 이의 삶에 복이 깃들길 바란다는 뜻)**

세월이 흘러 집은 다른 이름을 얻었지만,
그 글귀에 담긴 바람은 시간을 건너 오늘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복(福)을 바란다는 것은
결국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양현재단의 20년도 그 마음으로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스무 분은 물론,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후원자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손을 내밀어주신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우리의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스무 해의 시간, 스무 명의 시선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발행** 재단법인 양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2길 21
tel. 02-6716-3090 | www.yanghyun.org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소호

**인쇄** 에스엠크리에이티브


재단법인 양현
yanghyun foundation

재단법인 양현
yanghyun foundation